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第9次 南北體育會談 會議錄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8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 2. 7(水) 10:00 ~ 12:15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측	北 측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張 忠 植 (大韓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김 형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學 來 (大韓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p>	<p>장 응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任 台 淳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세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曹 英 承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허 혁 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張忠植) : 안녕하세요?

北(김형진) : 예, 안녕하세요?

(記者들 寫眞撮影)

南(張忠植) : 자, 앉읍시다.

北(김형진) : 아주 記者先生님들 상당히 극성스럽습니다.

南(張忠植) : 그동안 健康하십니까?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춥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아, 지금 푸근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南(張忠植) : 지난 주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서, 요 근래에 저희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北(김형진) : 예, 그쪽에서 눈이 많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南(張忠植) : 어떻습니까 平壤은?

北(김형진) : 우리 쪽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뭐 개성 내려오면서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우리 北方 쪽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스키季節이 돼서 눈이 많이 오는데 體育人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 어떻게 봄도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北(김형진) : 엇그저께 立春이 지났습죠?

南(張忠植) : 예. 어떻습니까 지금 以北에는 「立春大吉」이라고 이렇게 대문에 써 붙입니까?

北(김형진) : 뭐 써 붙이는 건 없어도 立春이야 뭐 누구나가 다 아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좀 봄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싹트고 또 萬物이 蘇生하는 季節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또 約束하게 됩니다.

南(張忠植) : 그러한 뜻에서 이제 立春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 風習을 그대로 지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舊正이 되며는 봄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立春을 맞이해서는 방에 또는 대문 밖에 「立春大吉」이라고 써 붙이고 말이죠.

北(김형진) : 그래서 이제는 봄이 온 것 만은 季節的으로 確定的인 거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씨도 뿌리고 뭐 農事도 하고 해서 열매도 좀 거뒀는데 自然季節은 이렇게 상당히 빠르는데 對話는 좀 늦은 感이 있어서 아직 가을을 못 면했습니다.

南(張忠植) : 어떻게 오늘이 9次會談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傳統的으로 아홉字 숫자, 西洋사람들은 일곱字의 숫자를 좋아합니다마는 우리는 「갑오」라고 해서 아홉字의 숫자가 우리에게는 참 좋은 숫자인데 9次會談때 우리가 8次會談때 거두지 못했던 것을 9次會談때 좀 거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글썄 숫자야 아홉이건 열이건 그건 어디까지나 客觀이니까 主觀이 그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하는데 따라서 잘 되겠조 뭐.

南(張忠植) : 그동안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北(김형진) : 예. 貴側에서 아마 좋은 結實을 맺도록 좋은 案들을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南(張忠植) : 어떻게 오늘 會談해 볼까요?

北(김형진) : 예. 會談 始作해 봅시다.

南(張忠植) : 場內를 좀 整理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침 이 집을 짓고 난 후에는 우리 體育會談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동안 저희가 좋지 않은 집에서 모시다가 오늘…….

北(김형진) : 이게 뭐 板門店이라는게 본래 分裂의 象徵인데 뭐 統一을 하는 方向에서 이렇게 자꾸 여기다가 좋은 집 지을 얘기해서야 사실 안 되지요.

南(張忠植) : 앞으로 統一이 다가올수록 이 附近에다가 觀光地도 좀 만들고 집도 좀 잘 지어서 이제는 自由스럽게 往來할 수 있도록 빨리 다가와야 될텐데요.

北(김형진) : 아마 뭐 觀光地야 우리나라야 본래 三千里 錦繡江山인데 그럼 좋은데를 觀光地로 해야지 이렇게 民族分裂의 가슴 아픈데를 後輩들에게 넘겨주자고 또 보여주자고 이렇게 할 必要야 없죠.

南(張忠植) :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過去의 쓰라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民族의 悲劇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김團長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야죠?

北(김형진) : 예. 그럼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죠.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 벌써 3번째로 본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쌍방이 다같이 지난해 12월중에 기본문제 토의를 결속하고 새해에 들어서 1월중에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2월 1일부터 합의서가 발효되도록 하자고 약속해 놓고도 오늘 또다시 제9차 회담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데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회담은 합의서 서명을 눈앞에 둔 최종결속단계에 와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편은 회담을 했어도 유일팀을 탄생시키지 못했던 60년대와 70년대의 전철을 밟는가 밟지 않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온 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체육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 또 회담의 운명과 유일팀의 전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오늘 유일팀 구성문제가 엄중한 기로에 놓이고 회담의 운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귀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이고 거의다 성사되어 가던 유일팀이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처음부터 회담은 하되 유일팀을 구성하지 않고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출전하려 걱정하고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해온 귀측의 부당한 대화자세와 립장에 기인됩니다.

귀측은 회담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유일팀을 성사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서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가 진전되지 못하도록 연이어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선수선발과 관련한 방안토의 과정만 보더라도 귀측은 우리가 제 1차 회담때에 그와 관련한 안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기하자 그것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실무적 문제들은 본회담에서 토의하지 말고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나오면 거기서 협의·결정하자고 우겨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안이 정당했지만 어떻게 하나 한 문제라도 빨리 타결지으려는 입장에서부터 우리안을 수정해서 그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자는 귀측의 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자기가 한 말과는 달리 쌍방 합의사항을 꺼리낌없이 뒤집어 엮고 제 4차 회담에 나와서 18개 항이나 되는 복잡한 선수선발 방법을 새로 수정해서 제기하고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가 아니라 본회담에서 토의해야 한다고 생고집을 부렸으며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가 선수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트집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5차회담 때에는 선수선발전의 공개성 문제를 새로 또다시 들고 나와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리게 하고 회담앞에 장애를 덧쌓아 놓았습니다.

사실상 귀측의 이러한 행동은 유일팀 구성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벌써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을 탄생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귀측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모든것을 참고 귀

측의 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그후에도 귀측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에 의해서 회담이 진전될수록 유일팀을 성사시키지 않으려는 부당한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가지었던 제 6차 회담때 귀측이 취한 행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귀측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회담때 우리는 지난해 12월 중으로 유일팀 구성에 관한 10개항 토의를 결속하기로 한 쌍방 합의사항이 그대로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수단단장문제, 공동사무국 장소문제 등 그때까지 미결로 남아있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귀측안에 문제가 있지만 대폭 양보해서 귀측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차 회담에 와서 유일팀구성과 관련한 기본방안은 완전히 합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 30년에 걸치는 북남체육회담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것으로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귀측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귀측은 우리의 양보로 유일팀 구성을 위한 10개 방안이 다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합의가 이룩되지 않았다고 우겨대는 웃지못할 희극을 연출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측은 우리측이 귀측에서 내놓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자 귀측은 왜 검토도 잘해보지 않고 동의하는가 또 빨리 동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것 자체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시비해 나셨습니다.

귀측의 그러한 행동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서 이 회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속에서 조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귀측이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가 진전되어 타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팀 구성을 지연·파탄시키기 위한 귀측의 책동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유일팀 탄생을 내외에 선포하기로 한 제 7차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제 4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그때 귀측은 본회담의 위임사항을 어기고 부칙이라는 미명하에 회담앞에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는 37개 항목이나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생뚱같이 제기하고 그것부터 토의하지 않으면 합의서 문안정리도 할 수 없고 서명도 할 수 없다고 고집해 나섰습니다.

귀측이 말하는 부칙내용이 쌍방의 합의정신에 대한 위반이고 또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키고 회담 앞에 난관과 복잡성만을 조성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더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의하기 전에는 합의서 문안정리도 할 수 없고 또 서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애당초 유일팀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귀측이 유일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이사회에 별개의 팀으로 출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자는 문제까지 꺼리낌없이 들고 나온 사실입니다.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회담을 하면서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는 서한

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국제기구에 보내자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
치이고 유일팀을 갈망하는 겨레의 염원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난 4차 실무대표접촉이 있는 후 오늘까지 30일간이나 우리 회
담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공전을 겪고 있는 것이 그때 귀측이 37개 항
목에 달하는 이른바 부칙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 앞에 인
위적인 장애를 조성해 나섰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온세상이 다 알
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키고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가
는 귀측의 행동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귀측의 책임있는 한 관계자는 유일팀이 될 경우 단독출전할
경우보다 저조한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귀당국의 한
체육관계자도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개별팀으로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선
포했습니다.

체육을 주관하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궤이한 공언은 사
실에 있어서 유일팀 구성문제를 파탄시키기 위한 전면 도전행위이고 체육
회담에 대한 결렬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즈음 남조선에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단독으
로 갈데 대한 여론을 집요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
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유일팀을 구성하여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고 쌍방 10명 대표들이 지니고 있

는 숭고한 민족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팀을 성사시켜야 하며 이제와서 그것을 중도반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을 구성하려는 립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측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의 팀으로 가지 않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쌍방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측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실로 별개의 팀으로 참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베이징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이사회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간교한 술책입니다.

귀측은 이것을 합의사항 리행보장장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주장이며 사실상 개별팀으로 가기 위한 보장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측이 실지로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 참가하려면 그것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유일팀을 구성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이 다 합의된 조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려고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와 합의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유일팀 구성에 대한 귀측의 의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귀측이 회담외적문제이거나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부칙을 깨끗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더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진 바와같이 귀측이 고집하고 있는 부칙이라는 것은 유일팀의 탄생을 가로막는 제동장치입니다.

우리는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에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지만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유일팀 구성을 방해해 나서는 귀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귀측이 조금이라도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이제라도 당장 고의적으로 회담에 난관을 조성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부칙을 철회하고 이미 합의한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 문안정리를 하고 서명하자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고 한 귀측 책임적인 체육관계자들의 발언을 취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귀측이 안팎이 다르게 우리와 마주 앉아서 유일팀 구성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면서 뒤에서는 별개의 팀으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것은 유일팀을 바라는 온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체육인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며 회담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은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유일팀이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귀측의 책임적인 체육관계자의 발언을 취소하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는 회담을 구원하고 유일팀을 성사시키는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진실로 유일팀을 구성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로만 유일팀에 대하여 운운하고 실지로는 유일팀 구성을

반대하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귀측이 조금이라도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체없이 우리의 요구를 성근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거듭되는 촉구와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끝내 유일팀이 구성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이 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민족과 역사앞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南(張忠植): 좀 달리 생각하고 나오실 줄 알았더니 지난 會談때 말씀하신 것을 더욱 強調하시는구만요.

北(김형진): 예.

南(張忠植): 그럼 제가 우리側の 말씀을 傳하겠습니다.

<우리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單一팀構成·參加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第9次 南北體育會談을 開催하게 됩니다.

南北雙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홉차례의 本會談과 여섯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지면서 單一팀構成·參加와 關聯한 全般的인 問題를 協議하고 있습니다.

南北體育會談은 반세기 가까이 分斷狀態를 持續해온 우리 民族이 國際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出戰함으로써 對內的으로는 상호 和解와 協力の

길을 트고 對外的으로는 民族의 團合된 모습과 훌륭한 技倆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民族的 興望에 副應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會談에 임하는 代表團은 和解와 協力, 改革과 開放을 向해 急速한 變化를 거듭하는 世界情勢의 흐름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民族 共同體로서 어느 한쪽도 世界史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時代的 使命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會談은 지난해 말까지 몇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刮目할 만한 進展을 이룩했습니다.

雙方間에 單一팀構成·參加와 關聯한 10個項의 基本事項과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에 基本的으로 意見一致를 본 것은 南北體育會談 史上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會談은 금년에 들어와 아무런 進展을 이룩하지 못한 채 空轉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內外에 알려진 바와 같이 合意事項의 履行保障問題를 놓고 雙方間에 意見이 정면으로 對立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單一팀構成·參加問題에 原則的 合意를 이룩하고서도 合意事項 履行保障 裝置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그 實現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면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合意事項을 마무리함에 있어 그 履行保障을 위한 附帶措置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節次이자 順序이며 一般的인 慣例인 것입니다.

單一팀構成·參加에 관한 合意를 이룩함에 있어 그 履行保障裝置를 튼튼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單一팀實現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長期間에 걸쳐 不信關係를 持續해온 南北間에 모처럼 이룩된 合意事項이 確實히 履行되도록 保障하는 것은 相互間의 信賴造成을 위해서도 반드시 必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마련하는 問題는 지난 12월 22일에 있는 第6次會談에서의 雙方間의 合意事項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貴側은 雙方間에 合意한 이 問題에 대한 討議에 事實上 誠意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相對側이 제시한 保障方案들의 全面撤回을 要求하는 無禮한 會談態度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貴側의 態度는 第6次會談때 까지와는 判이한 것으로서 單一팀構成에 대한 原則的 合意를 對外的으로 發表하는 데에만 關心이 있을 뿐, 合意事項의 實踐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는 疑懼心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그간 會談過程에서의 合意內容을 冷徹하게 再確認하고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을 위한 合理的 方案을 마련하는데 誠意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合意書 用語解釋 問題입니다.

南北雙方은 우여곡절 끝에 10個項 基本事項에 意見一致를 볼 수 있었습니다.

單一팀構成·參加와 關聯하여 특히 體育本質問題라고 할 수 있는 選手選拔, 選手訓練, 選手團構成 問題를 놓고 雙方間에는 尖銳하게 意見이 對立된 바 있었으며 따라서 原則적으로 意見이 一致된 事項에 대해서 그 뜻을 相

互 確實하게 確認해야 할 部分들이 남아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예컨대 選手選拔問題만 해도 貴側은 지난 12月 實務代表接觸 때까지 非公開裡에 協議를 통해 雙方間 均衡을 保障하도록 選拔할 것을 고집하였고, 選拔戰을 서울·平壤 등 南北의 地域을 相互 往來하면서 實施한다는 項目의 明文化에 대해서도 反對意思를 表示해 왔었습니다.

〈非公開選拔戰〉이란 말조차 들어 본 일이 없는 우리側으로서는 選拔戰을 〈公開裡에 實施한다〉고 明文化할 수 밖에 없었던 過程을 생각할 때 公開選拔戰의 概念등을 애매하게 놓아두는 것은 會談代表로서의 責務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側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의 하나로서 用語解釋 問題를 提起한 것은 會談過程에서 相互間에 意見이 尖銳하게 對立되었던 이같은 部分을 包含하여 雙方間에 爭點으로 飛火될 수 있는 몇몇 用語에 대해서 그 意味를 分明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合意書에 使用된 用語의 定義를 正確히 規定하는 것은 相互 合意의 趣旨에 充實하겠다는 것을 確認하는 것이며, 合意書의 文案整理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도 必要한 것입니다.

둘째,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입니다.

이것은 모든 合意書에서 보편적으로 採擇되고 있는 附帶措置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南北關係, 특히 1979年과 1984年에 있었던 南北體育會談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措置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南北體育會談이 결코 相對方의 國際競技大會 參加를 妨害하기 위한 目的이나 手段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貴側은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들이 어느 한 쪽을 엮어낼 수는 없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를 明文化해 두는 것은 合意事項을 單一팀實現 이외의 不當한 目的에 利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必要한 것입니다.

또한 第11回 아시아競技大會 準備가 이미 進行되고 있는 時點에서 南北間 合意內容을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 등 關係機關에 正確히 通報하는 것은 마땅히 취해야 할 節次인 것입니다.

물론 南과 北의 올림픽委員會는 각기 獨自적으로 관계 國際體育機構에 必要한 通報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側로서는 南北間에 單一팀構成·參加에 合意하는 이상, 이같은 通報도 마땅히 南北올림픽委員會 共同名義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單一팀 呼稱問題는 南北이 共同으로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通報, 提議하기로 雙方間에 合意한 事項입니다.

뿐만 아니라 單一팀共同委員會는 參加申請書가 提出되는 6月22日頃에 가서 對外的 機能을 發揮하도록 意見一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貴側 主張대로 이같은 問題를 共同委員會로 넘기게 된다면 6月22日以後에야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 公式通報할 수 있게 됨으로써 大會組織委員會와의 關係面에서 불 때도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셋째, 單一팀構成·參加關聯 推進日程의 遵守問題입니다.

雙方은 10個項 合意事項에서 이미 共同推進機構의 發足時期, 合同訓練 始作時期, 選手選拔戰 實施時期, 單一팀構成完了 및 參加申請書 提出期限 등 單一팀 推進日程에 事實上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우리側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까지의 時日이 限定되어 있음을 考慮하여 10個項에 대한 意見一致의 土臺위에서 相互 協議下에 그 日程을 確實히

정해 두자는 것입니다.

貴側이 〈合同訓練의 마지막 段階〉에서 選手選拔戰을 實施하고 參加申請書 提出期限인 〈6月22日 以前까지 單一팀構成을 完了〉하기로 合意했다 하여 選拔戰時期를 6月22日까지 미루려 하는 立場이 아니라면 推進日程 協議에 應하지 못할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單一팀 推進日程의 遵守問題 역시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을 위해 반드시 必要한 措置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貴側은 合意事項 履行保障問題에 대해 雙方 當局 및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履行保障覺書로써 充分하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은 宣言的 保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合意內容을 實際로 實踐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具體的인 措置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相對側이 提示한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위한 實踐的 方案을 무조건 撤回하라고 主張하는 것은 合當한 態度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貴側은 우리側이 제시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가 共同委員會에서 論議할 事項이라고 主張합니다.

물론 共同委員會가 構成되면 具體的 推進計劃 등이 論議될 것입니다.

그러나 合意事項의 用語解釋問題,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單一팀 構成·參加 推進日程 遵守問題는 南北體育會談에서 반드시 合意해야 할 事項이며 共同委員會가 그 機能을 蹉跎없이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도 必要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側이 제시한 用語解釋이나 日程遵守問題 등 合意事

項 履行保障裝置는 10 個項 合意事項의 意味와 範圍를 明白히 하자는 것이며, 共同委員會의 圓滑한 運營과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기 위해 이 會談에 주어진 任務를 充實히 遂行하자는 것입니다.

貴側은 우리側의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가 會談에 〈難關〉을 造成하는 것이라느니, 〈制動裝置〉라느니 하는 無責任한 主張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合意事項을 誠實하게 履行하도록 하자는 것이 〈難關〉이요, 〈制動〉이라면 貴側이 公言한 바 있듯이 合意事項의 履行裝置는 애당초 必要없다는 것으로 됩니다.

이같은 貴側의 態度야말로 合意事項에 대한 徹底한 履行保障裝置가 必要함을 反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貴側은 昨年 4 월에 이어 今年에 들어와서도 南北體育會談과는 關係가 없는 政治的 聲明에 가담하여 合意事項 履行意志를 疑心할 수 밖에 없게 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貴側은 이 會談場에서까지 貴側의 이같은 行動을 正當化 하려 하고 있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南北雙方은 單一팀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의 發效日字를 2 月 1 日 로 하기로 意見一致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2 月 15 日 이전에 單一팀 共同推進機構를 發足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遲滯할 時間的인 餘裕가 없으며 따라서 오늘 會談에서는 單一팀構成·參加에 대한 全般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貴側에 單一팀構成・參加에 대한 實踐意志가 있다면 우리側이 提示한 合意事項 履行保障問題 討議에 誠意를 보일 것을 다시한번 促求합니다.

우리側은 이제라도 貴側이 合意事項 履行保障問題 討議에 誠意를 보인다면 合意書 形式에 구애받지 않고 伸縮性を 發揮할 用意가 있음을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以上입니다.

北(김형진)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張先生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6次會談 이후, 명백히 말해서는 第4次 實務代表接觸 이후에 會談이 最終 結束段階에 이른 바로 이 時點에서 唯一팀 構成을 遲延시키는 不必要한 問題들을 내놓고 會談을 空轉시키고 있는 事實들을 認定할 대신 구태의연하게 또다시 貴側의 主張을 고집했습니다.

貴側은 전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保障裝置問題를 合意했고 또 合意事項 不履行時 別個의 팀 參加하는 것을 主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천만번 不當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貴側이 會談을 空轉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唯一팀을 決裂시키려는 이런 立場에서는 한 걸음도 前進이 없다. 그래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重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貴側이 오늘까지 이 問題를 거듭 고집하는 것은 우리 會談앞에 드리운 難關이 除去되지 않고 또 會談을 空轉시킴으로써 唯一팀을 나중에는 決裂시키려하는 貴側의 立場과 姿勢에서는 아무런 變化가 없습

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貴側이 이러한 立場과 姿勢로부터 이번 會談에서 提起한 바와 같이 오늘 貴側이 唯一팀 構成에 眞實로 關心이 있는가 없는가를 確認하는 이런 우리 세가지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사실상 이 세가지 問題로 말하면 첫째로는 第11次 아세아競技大會에 반드시 唯一팀으로 나가며 어떠한 境遇에도 別個의 팀으로 出戰하지 않겠다는 것을 雙方이 合意하고 内外에 公布하자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附則과 같은 不必要한 問題들을 들고 나와서 會談 막바지에 唯一팀 誕生을 沮害하고 있는 이 問題들을 是認하고 撤回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貴側의 體育 責任關係者들이 別個의 팀으로 나갈것을 主張하고 있는 이런 發言들을 取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提起하는 이 세가지 問題, 이것은 貴側이 取하고 있는 立場으로부터 出發해서 合意書 文案整理나 合意書採擇 以前에 반드시 急先務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입니다. 바로 貴側은 이런 根本의이며 初步的인 問題가 아직 解決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서는 會談의 成果的인 進展과 唯一팀 構成을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提起한 이 세가지 問題에 대한 確답은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貴側이 이제 말하는 바와 같이 唯一팀 構成을 眞心으로 바란다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이 本心 그대로 確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世上에 公布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會談에서는 急先務로 나서고 있는 이 問題, 우리가 提起한 이 세가지 問題에 대한 貴側의 立場을 차례로 責任的으로 確答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南(張忠植): 예. 지금 이 세가지 案을 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가 8次 會談때 우리 그 附則條項을 提案했던 배경설명을 내가 말씀드려서 充分히 理解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말 10個事項에 대해서 合意를 하고 單一팀을 構成할 수 있는 이러한 誠意와 眞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應當 오늘 貴側에서 態度變化가 있으리라고 그러한 希望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會談劈頭에 대뜸 北側 김단장께서 이 3個 原則을 말씀하셨는데 11次 아세아競技大會에 單獨으로 參加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單一팀 構成할 수 있는 條件이 갖춰지지 못한 狀態에서 單獨팀으로 參加하지 말라 하고 이것을 約束하라는 것은 애당초 北側에서 이 會談을 提案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單一팀을 만든다는 이러한 명분하에 결국 南側이 北京아세아競技大會에 參加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意圖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 理由로서 우리 그 附則條項 10個事項을 우리가 냈을때에 이러한 열개 合意事項을 해놓고 이것을 北側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는 誠意가 있다고 하려는 우리가 提案한 이 附則에 대해서는 誠意껏 받아들여라 이렇게 우리는 體育人으로서 하나의 常識線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南北間에 있어서 스포츠를 交流할 수 있는 이러한 風土를 造成하고 또 우리가 名稱이라든가 團旗問題라든가 團歌, 이것은 民族的인

團合과 和解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참 기분 좋게 승
意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다음의 問題라고 하는 것은 體育技術的인 問題로,
이것은 能히 우리體育을 해온 立場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 個事項을 우리가 基本的으로 승意해 놓고 共同委員會에 나
가서 서로 많은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南北間에 本會談 이상으
로 그 많은 時間을 所要할 수 있는 이러한 紛爭의 실마리를 많이 남
겨 놓아서 안되겠다.

그러한 立場에서 우리는 用語上의 解釋問題라든가 또한 日程의 遵守問
題라든가 정말 北側이 單一팀으로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眞心이 있
다고 하며는 우리 各其 NOC가, 이러한 南北單一팀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各其 우리 NOC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두개 NOC가 있는 이상은 서로 單獨팀으로 나갈것을, 單
一팀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때 이것 北京아세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 OCA
에 그 우리의 승意事項을 通知하는 것은 이것 하나의 常識이라고 생각
하고, 하나의 그것은 外交的인 禮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單獨팀으로 나가느냐 單一팀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北京組織委
員會에서도 여러가지 準備事項에 있어서 거기에 伸縮性이 생기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單一팀으로 構成이 만에 하나라도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單獨팀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事實도 알려줌으로 인해서 北
京大會組織委員會의 準備에 蹉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國際

스포츠大會에 參加하는 選手團의 立場에서 하나의 基本姿勢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側에 대한 常識的인 이 問題, 특히 用語解釋上의 問題라고 하는거 이런것은 貴側에서 單一팀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며는 共同委員會에서 우리 열사람이 本會談에서 會議를 近11個月 끌어왔습니다마는, 이제 6月22日이 우리의 그 엔트리 期日입니다.

앞으로 이 짧은 日程에 우리 合同訓練, 또는 選手選拔, 選手團 構成問題, 또는 313個에 關한 그러한 많은 種目들에 대한 選手選拔, 訓練問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雙方코치나 또는 監督들 사이에 있어서 意見이 分분할 수 있고 그러한 問題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며는 이것을 短時間內에 本會談에서 骨格을 짜서 共同委員會에 넘겨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그것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案은 貴側에선 무조건 撤回하라. 그것은 내가 볼 때 貴側에선 合意事項 10個를 對外的으로 宣傳하고 結局은 거기에서 雙方間에 單一팀으로서 10個事項을 合意했으니까 單獨으로는 가지 말자 하는 것이 當初 北側의 이것이 底意가 아닌가.

우리가 附則 7個項에서 3個項에 대해서는 이미 共同委員會 細則案에 다 들어가 있는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네개 用語解釋上의 問題, 日程遵守問題, 그다음에 OCA와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 書翰發送問題, 그다음에 10個事項을 履行 못했을때, 거기에 대한 10個事項의 無效化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單一팀이 안됐을 때에, 그것을 가정을 해서 안됐을 때에 履行措置를

우리가 要求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單一팀을 만들자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한 眞心이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내놓아야 할 理由가 어디 있겠는가?

또 아까 附則討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무시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대한 用語解釋問題라든가 日程遵守問題라든가 이것은 貴側에서 討議를 해올 수 있는 이러한 야량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個別팀으로 가자고 한 發言을 取消해라, 사과해라, 이것은 상호 尊重해야 할 이러한 雙方의 代表立場에서는 말씀해서는 안될 問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자신도 우리 民族이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統一을 갈망하고 統一의 지름길로 가는 길은 雙方이 單一팀을 만들어서 北京아세아大會에서 民族의 기량과 우수성을 발휘하자고 하는 이러한 眞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單一팀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條件을 제시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難關이요, 걸림돌이요, 파탄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責任을 우리에게 전가한다고 하는것은 제가 볼 때 다분히 貴側의 態度는 하나의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會談을 政治的인 面으로다가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貴側에서 單一팀을 진정 만들어서 우리 民族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 附則 7個項 가운데 3個項은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를 했거든요. 거기서 3個事項은 이미 共同委員會 細則案에 들

어가 있는거고 貴側에서도 거기에 同意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用語解釋問題, 日程遵守問題, 그다음에 北京아세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OCA 에 우리가 單一팀으로 參加한다는거 하고 參加하지 못했을때 우리가 單獨팀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는거 이걸해서 蹉跎을 빚지 않도록 對外的인 신사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 個事項이 履行이 안된다고 했을때, 合意事項은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合意事項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無效化 된다는意味인데 討論조차도 안하고 撤回하라 이것은 내가 볼때 貴側이 會談을 깨자고 하는거밖에 더 되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다까?

張先生 그렇습니다. 우리가 會談이 唯一팀을 구성하는 會談이 아닙니까? 唯一팀을 구성하는 會談인데, 구성하기 위한 會談인데 지금 貴側에서는 張先生은 唯一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思考하는가? 여기에 矛盾點이 있습니다.

南(張忠植) : 사과요?

北(김형진) : 아니 가만 思考.

唯一팀은 어떻게 하나 구성해야 한다는 이런 意志를 가지고 會談에 임해야 할뿐만 아니라 民族의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唯一팀을 반드시 成事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唯一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張先生 말씀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思考하는가? 만약에 唯一팀이 안된다면 이건 별개의 팀으로 가는거 對外에 선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과 관점인데 그래 과연 唯一팀을 成事하자고, 시키자고 마

주요한 會談에서 별개의 팀으로 參加할데 대한 書翰을 合意하자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思考입니까? 이거 矛盾點 있습니다.

南(張忠植): 내가 말씀드릴게요.

北(김형진):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提起한 要求條件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 唯一팀을 구성하자고 마주앉은 이상은 唯一팀을 成事시켜야 하며 기어이 제 11次 아세아競技大會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唯一팀으로 가야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貴側은 이問題가 바로 이런 관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貴側이 내놓은 保障裝置問題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保障裝置問題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거야 이미 保障裝置가 制動裝置라는거야 천하에 다 이젠 公開되고 명백해진 사실인데 이거야 尙당 撤回해야죠. 撤回해야 會談이 전진하고 唯一팀 구성이 막바지에 온 時期에 時間을 앞당길 수 있고 이제 首席代表가 말한것처럼 發效時日도 지났는데 더 앞당기게 재촉할 수 있고 바로 이런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두번째 問題 附則을 撤回하고, 그것이 制動裝置였다는걸 시인하고 撤回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解決되지 않고는 또 이것이 貴側이 가지고 있는 現時點에서의 이런 立場과 자세를 바로하지 않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더 길게 이야기할거 없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貴側의 立場을 확인할때가 됐습니다.

자 基本合意書 열個項, 그다음에 共同委員會 構成·運營細則에 관한 方案合意書 다 合意됐습니다. 文案整理하고 그것이 合意된 때로 40여일이

지냅니다. 또 貴側이 附則을 내놓은 때로부터 근 30日이 돼오는데 이 期間 아무것도 못하고 공전됐습니다.

왜 空轉됐는가? 아 이거야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건데 貴側이 명백히 이런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중요한 問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이거 뭐 貴側에서 본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심. 우리 물음에 對答하면 됩니다. 다른거 없어요.

南(張忠植): 내가 本心아닌 가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會談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人間이라고 하는것은 오늘 하루에 인격이 형성되는건 아닙니다. 人間の 信用이라고 하는것은 오늘하루 당장에 그 信用이 형성되는게 아닙니다.

問題는 南北間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거사에 있어서 특히 體育會談에 있어서, 나는 다른 例는 들고 싶지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듯이 60年代, 70年代, 80年代 즉 말씀하셨습니다만 南北關係의 體育會談이 信用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밝지 않기 위해서 單一팀을 만드는데서 이러한 정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배경설명을 지난 8次會談때 내가 充分히 말씀드렸고 7次會談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는 84年度의 일과 79年度의 일은 하나도 反省없이 거기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이번에 單一팀 만드는데 그러한 술책은 안하겠다 하는…….

北(김형진): 그래서 過去會談으로 돌아가잡니까?

南(張忠植) :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김단장은 나한테
答辯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10 個事項은 合意했으니까 우리의 履行保障問題에 대해서는 이
것을 撤回하라, 우리 履行保障問題라고 하는것은 과거의 그러한 진찰을
우리가 안밧기 위해서 정말 이번 會談만큼은 誠實하게 서로 南北이 믿
을 수 있는, 신임할 수 있고 信賴性이 돋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서 單一팀이 構成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附則정도의 네가지
項 정도는 貴側에서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 수 있고 우리보고 民族앞
에 이러한 큰 선물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姿勢라고 한다면, 우
리의 附則, 여기에 대해서 貴側에서 討論하자고 나와야 하는것이 마땅히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使命感을 가진 北側代表團이라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討議하지 않고 덮어놓고 세계의 原則을 확약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10 個事項 이것은 우리가 會談하는
하나의 精神 이것을 표시한데 불과하고 그 精神을 立證할 수 있는 이
러한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볼때 單一팀 만드는게 어렵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만나서 모르는 사람보고 돈 꿩달라고
했을때 돈 꿩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過去에 거짓말한 사람을 만났
었을때 거짓말한 사람 말 이렇게 하지는것을 끝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
것이에요. (北側代表 웃음)

이러한 것은 난 그래요. 내가 84 年度에 프라하에 결국 貴側에서, 난

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貴側에서 LA올림픽에 안나가겠다고 거기에 參加해서 선언해 놓고 그 이튿날 우리보고 單獨팀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 오늘 原則말하는거 單獨팀하고 똑같애요 보면.

民族의 和解, 同胞愛라고 말씀하셨는데 79年度에 다른나라 팀들 다 있습니다. 그때 平壤서 안 열렸으면,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 卓球選手들이 갈 수 있는거예요. 平壤에서 國際大會를 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南側代表들 못들어오게 해야되겠다, 못들어오게 하는 貴側의 裝置가 뭐냐하면 單一팀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會談이 그러한 꼴로 된다고 생각됐을때 이것은 우리가 民族을 우롱하는 體育會談이 되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10個事項을 合意 할때에 그 과정을 볼 때, 그러한 과거사를 회고해 볼 때 共同委員會細則이라고 하는것은 北側이 적어도 여러가지 우리가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用語上的 여러가지 解釋上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選手選拔問題에 있어서, 감독·코치간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등등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하려는 共同委員會에 대한 細則問題에 있어서도 이걸 좀 우리가 檢討해 봐야 되겠다 했을때, 아 北側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案에 대해서 이것을 檢討하겠다. 이거 그냥 받아들였으니깐 받아들인것도 是非냐?

問題는 狀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깥으로 비쳐지는 그 形式에 있어서 人間이라고 하는것은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정말 北側에서 이것을 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4년도와 79년도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또한 民族團합이라고 하는거, 統一

이라고 하는거 이런것을 前提로 해서 이 體育會談에서 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보다는 하나의 政治的인 方向으로 이것을 利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좀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세가지 중요한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貴側은 지금 우리가 提起한 세가지 問題를 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保障裝置問題 討議를 또 主張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貴側이 지금까지 會談을 空轉시키는 責任이 貴側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시인하지 않고있을 뿐만 아니라 不當한 附則의 不當性을 모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貴側은, 張先生은 過去 歷史에 맞지도 않는 사실과 맞지도 않는 問題들을 다시 舉論하는데 이거는 역시 한두번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세가지 問題를 提起했는가, 이것을 모르고 계속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가지 問題를 提起한 根本趣旨는 바로 이 時刻처럼 會談이 空轉을 하고 있는, 더 正確히 말한다면 貴側의 不當한 立場으로해서 會談을 破綻危機에서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 唯一팀을 成事시키자는데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세가지 問題.

南(朴秀蒼) : 김단장님, 무엇을 밝히자는 거예요?

北(김세진) : 박선생, 우리 단장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왜 第11次 아세아競技大會에 別個팀으로 參加

하지 않고 당시…….

南(朴秀蒼) : 무엇이 세가지 事項이 單一팀을 成事시키지 않은 거예요?

北(허혁필) : 말을 들어보고 해야지.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南(任台淳) : 무슨 얘기냐 하면…….

南(朴秀蒼) :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그 세가지에 대한 說明이 다시 必要가 없어요. 이거 뭐 三尺童子라도 얘기 들으면 알 수 있는데.

南(任台淳) : 오늘 長文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여기서 朗讀을 하시겠다 이건데, 이거는 會談에 대한 禮儀問題입니다.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南(朴秀蒼) : 아니, 더이상 說明이 必要 없다는 겁니다.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北(허혁필) : 얘기를 들어보고.

北(김세진) : 단장들이 하는데 무슨 군소리들을 하고 있소?

南(朴秀蒼) : 아니, 이 세가지 事項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단니까요.

北(김형진) : 점잖게 하자구요, 朴先生님.

南(朴秀蒼) : 別途의 說明이 必要없다 이겁니다 이젠.

北(김형진) : 그래서…….

南(任台淳) : 아니 세가지 原則에 대한 說明이라면 우리는 들을 必要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南(朴秀蒼) : 이게 무슨 들을 必要가 있어요?

南(任台淳) : 지금 세가지 原則에 대한 說明을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北(김형진) : 會談이야 道德이 있고 秩序가 있어야지.

상대편이 말하는데 그걸 그만두라 말라 할거 있어요? 가만있어요, 任先生님.

南(任台淳) : 아니 그러니까 道德이 있고 秩序가 있는데 原則問題를 提示했다면 우리는 그건 不必要하다는걸 우리側 代表도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北(장 웅) : 貴側 首席代表가 한 얘기 계속할때 우린 들었습니다.

南(任台淳) : 아니 장선생, 會談이 이렇게 되며는 이걸 자꾸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會談을 여는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거 싸움을 하기 위한 會談이라면 안하는 것만도 못한거 아닙니까?

南(朴秀蒼) : 만약에 決裂될 일이 있더라도 깨끗이 할 意思가 없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솔직히 北側 보며는 마지막에 會談을 決裂시키겠다고 하며는 무엇에 대해 是認·謝過하라, 무엇을 取消하라.

北(김형진) : 朴先生님! 朴先生님! 가만있어요.

北(김세진) : 朴先生님! 會談을 오늘 또 이렇게 複雜하게 만들자는거요? 問題를 解決하고, 새로운 방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南(朴秀蒼) : 솔직히 會談할 意思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일어나면 될거 아닙니까?

北(김형진) : 그래서 이것은 唯一팀 構成에 대한 貴側의 意志를 明白히 하자는데 있습니다.

南(任台淳) :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 김단장께서는 그걸 계속 朗讀을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貴側에서는 會談을 그만두겠노라 하는것을

宣布하는걸로 밖에는 理解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立場을 계속 견지하시면 안됩니다.

北(김형진) : 가만있어요. 貴側의 立場이 명백히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南(朴秀蒼) : 會議의 議題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니까.

南(任台淳) : 이거는 완전히 決裂을 宣言하러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南(張忠植) : 지금 討議하는 중인데 김단장께서 미리 준비한걸 가지고 와서 朗讀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드래도 나는 김단장을 禮遇를 해서 3個項에 대해서 내가 지금 反對말씀을 드렸고 내 意見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貴側이 그것을 發言文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朗讀하겠다 하니까 결국 우리 代表立場에서는 會談을 깨자고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내 말씀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張先生님 들으십시오. 듣고 얘기 하십시오, 그건 듣고 얘기하십시오.

南(張忠植) : 얘기 해 보십시오 그럼.

北(김형진) : 貴側은 이제 우리가 마주 앉아서 唯一팀構成을 위한 會談을 하면서도 사실상 뒤에 돌아가서는 唯一팀이 아니라 別個의 팀으로 參加하는 이런 行動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唯一팀으로가 아니라 別個의 팀으로 參加할데 대한 發言들을 公公然히 하고 있습니다. 最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貴側의 出版物들에 실린 모든 資料들이 이것을 明白히 確證해주고 있습니다.

貴側도 이제 記憶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月8日 貴側 體育責任

的인 關係者는 泰陵選手村에 나가서 記者會見을 벌려 놓고 어떻게 얘기 했습니까? 『單一팀이 될 境遇 單獨出戰할 境遇보다 低調한 成績을 낼 可能性이 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唯一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別個의 팀으로 參加하는 것이 낫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걸? 또 이걸 個別的인 體育人이나 한 言論人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貴側 體育關係 責任 일꾼이 한 말입니다 이걸. 또 그것도 記者앞에서 世上에 대고 公開的으로, 公開的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 이것이 唯一팀 構成을 反對하는 것으로 밖에 理解할 수 없습니다. 明白하죠.

그리고 지난해 貴側이 11月11日 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會에서 어떤 決定을 採擇했습니까?

南(張忠植): 아니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사는 세상입니까?

北(김형진): 가만히 좀 보세요.

南(張忠植): 아니요. 우리…….

北(김형진): 張先生님 점잖지 못하게, 조금만 듣고 얘기하십시오 듣고. 듣고 얘기해야지 이거 자꾸 이래요. 듣고 말씀하십시오.

北(허혁필): 얘기해 보라고 하고서…….

南(張忠植): 내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個人이 얘기하는 問題가, 그 選手들 앞에서 한 얘기 그거 가지고 會談에서.

北(김형진): 그 어떤, 選手들 앞이 아니요. 記者會見입니다, 記者會見. 個人이 아니죠. 貴側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입니다.

南(張忠植): 그런 意見을 얘기할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北(김형진): 그래서 또 貴側 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會에서 어떤 決定 採

擇했습니까? 實質的으로는 年末까지, 昨年 11月11日, 年末까지 唯一팀 構成·參加가 決定되지 않으면 會談을 取消해야 한다는 決議文을 採擇했죠 올림픽委員會에서?

南(張忠植): 그제 뭐 잘못됐습니까?

北(김형진): 12월이 지났습니다. 年末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結論이 어디에 作用합니까?

南(張忠植): 會談進行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北(김형진): 11월11日, 年末까지 안되면 取消하는 決議文까지 採擇했습니다. 지금 12월이 지났습니다.

南(任台淳): 그러면 지금 會談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南(張忠植): 會談하고 있어요 지금.

北(김형진): 둘째로 왜 貴側이 合意事項履行問題를 故意的으로 들고 나온 問題로 是認하고 撤回하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이거.

이건 뭐 다르게 생각할것 없어요. 이제 그 저기선 뭐 별나게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雙方 合意事項으로 留意, 1月10日 37個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거야 會談을 遲延시키기 위한 制動裝置라는거야 明白해 지지 않았습니까?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할 問題, 그 다음에 會談 議題와는 關係없는 問題 이런 問題들을 提起했습니다. 이것이 制動裝置 아네요?

또 貴側은 附則이라는데서 唯一팀이 成事되지 않는 境遇 別個의 팀으로 나갈데 대한 것을 베이징 아세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나 또 아세아올림픽理事會에 書翰으로 보낼데 대한 問題까지 提起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唯一팀을 構成하자는 會談을 하면서 또 別個의 팀으로

나가자는 問題를 確認해서 書翰을 보내자는 問題를 이 會談場에서 討議할 性格의 問題인가? 이 問題를 내 놓음으로써 會談을 空轉시키자는 意圖적인 行動이다, 明白합니다.

이것은 결코 否認할 수 없습니다. 또 貴側은 이것은 이제 制動裝置 問題를 辨明하는데 正當化할 수 없습니다 결코.

또 세번째로 우리가 提起한, 貴側의 體育關係 責任일꾼들의 發言을 取消하라는 問題입니다. 이 問題야 當然하지 않습니까? 貴側의 責任일꾼들이 會談場에 내 보내면서 뒤에서는 唯一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 單一팀으로 나가는게 더 좋다. 이진 될 말합니까.

그런가 하면 또 貴側이 當局의 體育 責任일꾼은 또 뭐라고, 責任者는 뭐라고 했습니까? 1月31日날. 그것도 1月29日, 1月29日 第8次 會談이 進行된 다음에 別個의 팀으로 出戰해서 綜合2位를 達成하기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상 當局이 體育關係 일꾼이라면 民族이 그토록 念願하는 唯一팀 構成에 어떻게 하나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鼓舞的인 얘기라도 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것은 그래 唯一팀 決裂宣言이고 破綻宣言이 아니고 뭣입니까?

南(張忠植) : 하하, 다 얘기 했습니까?

北(김형진) : 가만히 좀 있으라구요 가만히 좀.

南(張忠植) : 예, 거 다 얘기하고 나.....

北(김형진) : 좀 참으세요. 貴側의 바로 이러한 모든 諸般事實은 우리 會談을 決裂시키는데로 이끌어 갔다는 것은 自明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 이런 發言을 결코 容認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默過할 수 없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貴側이 會談에 나와서는 唯一팀을 構成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마는 뒤에 앉아서는 貴代表團을 派遣하는 이런 責任者들이 이러한 말과 行動을 함으로써 사실상 오늘과 같이 現時點에서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本會談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本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가지 原則的 問題에 對答을 明白히하는 것이 會談을 구원하고 唯一팀을 빨리 誕生시키는 急先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問題에 대한 貴側의 態度는 진실로 唯一팀 構成에 意志가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試金石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責任的인 確答을 해주십시오.

南(張忠植) : 세가지 原則을 말씀했는데 나 3가지 原則 다 제가 否定하고, 否定하고 反對합니다.

왜냐? 우선 貴側에서 말이죠 아까 내가 그 貴側의 첫 發言文에 김 단장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도둑놈이 몽둥이 잡는다』고 말씀했는데, 79年度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立揚이라면 79年度에 대한, 84年度에 대한 貴側에서 취한 그 問題에 대해서 먼저 謝過해야 될 것입니다.

過去 우리가 이리이러한 行爲에 대해서 眞心으로 이견 南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취한 措置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貴側에서 그것은 謝過를 해야되는 것이고,

北(장 응) : 그거 이야기 다 하잡니까? 63年度부터 이야기 하잡니까?

南(張忠植) : 예? 말씀하셔야 되는 問題이고.

南(任台淳) : 아 이야기 할건 해야되지 않아요.

北(장 응) : 63年度부터 합시다.

南(張忠植) : '또 하나 貴側에서 眞正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안 하고 民族團合을 위해서 單一팀을 만들고자하는 이러한 眞心을 가진분이 라고 하면 마땅히 이 會談을 우리가 9次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過去 우리 立場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態度를 취했으니깐 그것 미안하다 말이죠, 謝過한다. 이렇게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貴側에서 履行保障裝置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北側代表團웃음)

南(朴秀蒼) : 아니 그게, 웃음으로 떤울일이 아니예요. 그게 무슨 웃을 일이예요.

北(장 응) : 말도 되지 않는 소리.

南(朴秀蒼) : 뭐가 말도 되지 않아.

南(任台淳) : 저 조용히 합시다.

南(李學來) : 當然한 이야기 아네요?

南(張忠植) : 생각해 보세요. 결국 貴側에서 本會談을 하고자 하는 것은 唯一팀을 만들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單獨팀으로 못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底意밖에 나로서는 받아들여 질수가 없습니다.

北(장 응) : 63년도 이야기 다 얘기하자는…….

南(朴秀蒼) : 아니 제가 어지간히 말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南(任台淳) : 조용히 해, 조용히!

南(張忠植) : 아니 남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는 김단장 얘기 나 다들었어요. 다들었는데.

北(김형진) : 예, 말씀하세요.

北(김세진) : 우스운 소리를 하시니까 우스운데, 거 우스운소리 …….

南(張忠植) : 아니죠 그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貴側에서 民族團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연 民族의 團合을 할 수 있도록 過去에 우리가 體育會談關係에서 그렇게 態度를 안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立場에서, 그러한 背景에서 우리는 적어도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共同委員會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10個 事項을 合意한 條件을 誠實하게 履行할 수 있도록 그 保障을 要求했는데 이거 無條件 撤回하라. 그리고 오늘 와서는 單獨팀으로 안나갈' 것을 말하라.. 이걸 79年度 再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리고 그거야 北側에서 우리 附則 4個項, 이것은 능히 常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過去에 그러한 經驗에서 提案했던 것이라고 하며는, 貴側에서 誠意있게 이것을 檢討해 줄 수 있는 姿勢를 보이진 않고 無條件 撤回하라. 그리고 會談하자. 이것은 實質적으로 會談을 貴側에서 이미 깨졌다고 하는 그러한 前提下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가지 項 나한테 말씀한거 그것 나는 전적으로 내가 反對하고 우리側의 4個項의 附則, 그 形態는 어떠한 形態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附則이라고 表現안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주셔서 가지고 討議하며는 그것 뭐 내일이고 모레고 나는 文案作成해서 우리가 合意事項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北(김형진) : 다 말씀했습니까?

北(김세진) : 그것 좀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인자 그 首席代表先

생이 애길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主要한 3가지 方途를 提起하게 된 것을 撤回하자 하는데 지금 놓고 보시오.

唯一팀 構成을 위한 우리 會談이 50餘日동안이나 지금 空回轉을 하면서 進展되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空論들만 해나가고 있는데 이래다 보니까 우리가 發效期間도 이젠 다 지나가고 이렇게 돼도 오늘까지 계속 空論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會談을 계속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든가 이 정말 塗炭에 빠져가는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해서 그 眞心으로 唯一팀을 救援하기 위해서 이런 方途를 提起했는데, 이런 方途를 提起한 것을 다 撤回하라. 안할려고 한다 이렇게.

南(張忠植) : 아 우리가 方途를 提案한 것은 마찬가지죠.

北(김세진) :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체가 會談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 가지고서 결국은 唯一팀을 하지 말자는 그 本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 이제 具體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3가지 問題가 오늘 會談 전면에 나서는가? 뭐 附則이요, 10個項 文項整理요. 이걸 세가지 問題는 다 이거 이전의 問題로 提起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전의 問題로 提起되는가? 인자도 내 얘기했지만 會談의 實態가 이렇고 그 다음에 지금 會談을 놓고 보며는 貴側에서 會談을 決裂하고 唯一팀을 지금 破綻시키려고 計劃적으로 策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直感하기 때문입니다. 좀 봅시다.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간단히 얘기를 하겠시요.

이제 그 지난기간 會談을 꼭 綜合 해보게 되면 貴側에서는 合意事項들을 亂暴하게 違反하면서 會談앞에 그런 무슨 親善交換競技니 또 施設踏

査班問題나 뭐이니 하면서 이런 複雜한 問題들을 내놓아서 會談앞에 그 難關을 造成했고 이런 그 難關이 造成돼서 唯一팀은…….

南(曹英承) : 김세진代表 그건 벌써 했던 얘기가 아니요.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세요 새로운 말!

北(김세진) : 좀 들으라요. 예, 그래서 說明은 안하겠는데 좀 들으라요.

北(김형진) : 曹先生, 曁先生.

南(朴秀蒼) : 發言時間을 좀 정해놓고 합시다. 時間을 정해 놓고 하자고.

南(曹英承) :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김세진代表!

南(朴秀蒼) : 그 一方的인 얘기만 자꾸하니깐 말어요. 거 중간에 끼어들며는 妨害한다고 그러고.

北(김세진) : 그래서 唯一팀을 지금 破綻으로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貴側도 아마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行動이 計劃대로 지금 進行되고 있다는 問題에 대해서 우리는 重視하고 있습니다.

南(朴秀蒼) : 發言을 아예 制限을 하고 하자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하고 發言時間을 制限을 하자니까.

北(김형진) : 그래 이거 道德이 없어요. 남이 말하는데, 朴先生! 남이 말하는데, 얘기가 끝난 다음에 朴先生이 한 時間도 하고, 하란말이에요.

南(朴秀蒼) : 한 時間, 받아 주지도 안찮아요.

北(김세진) : 그게 이 會談을 지난 8次 會談도 首席代表先生이 말한것을 보면 이걸 지금 段階論까지 들고나와요.

1段階는 뭐 10個事項合意요, 2段階는 무슨 保障裝置 討議요, 이렇게 해서 3段階, 4段階 계속 이렇게 會談을 끌고 가는거, 이런 段階式으로 끌고 간다면 결국 會談에서 무일 얻자는 거냐. 이건 唯一팀을 안

하자고 하는 그 속셈 밖에 드러나는 것 더 있느냐 하는게 明白해졌다.

南(曹英承) : 김세진代表, 새로운 案이나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北(김형진) : 曹先生! 왜 자꾸 이래.

北(김세진) : 두번째로 얘기 할 것은 貴側에서는 本會談 議題밖의 問題들 말하자면 附則과 같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 會談을 愚弄하고 오늘 首席代表先生이 우리보고 民族을 愚弄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貴側에서 이런 附則과 같은 本會談 議題밖의 問題를 들고 나와서 이 本會談을 愚弄할 뿐만 아니라 唯一팀을 背信하는 이런 行動을 公公然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明白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唯一팀을 하자는 그 意思인가? 나 說明을 안하잖아요. 지난 기간 附則의 內容이 우리 議題밖의 問題라는 것 다시 說明하지 않겠어요. 그건 이미 다 確定되었기 때문에.

세번째로 지금 이자 많이 이야기 됐지만 더욱이 嚴重한 問題가 뭐인가. 이 會談 막 뒤에서 當局의 高位體育關係者들이…….

南(任台淳) :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정말?

北(김세진) : 別個의 팀을 公중이하면서 唯一팀에 대한 破綻宣言을 내리는 것이 問題가 있다. 이자 다 얘기 됐지만 금년 1月31日날 얘기된거 다 理解돼죠?

南(張忠植) : 아까 김단장이 얘기했어요 그건. 김단장이 이얘기한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구요.

北(김세진) : 貴側의 體育關係 責任者는 盧泰愚에게 業務報告를 하면서 唯

—팀을 안하겠다는 宣言을 벌써 내렸단 말이에요.

南(張忠植) : 그러한 이야기는 말이죠.

南(任台淳) :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北(김세진) : 그다음에 1月8日날, 1月8日날, 또 泰陵體育村에서는 그 무슨 訓練開幕式을 하면서, 그뒤에서 記者會見을 하면서 한 말을 記憶하십니까? 唯一팀으로 가면 成績에 支障이 있다. 單一팀으로 가겠다고 이미 宣布를 한 거 理解하시죠?

南(任台淳) :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中止하시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盧泰愚라니! 아니 그럼 김일성, 김일성은 안그랬단 얘기야 그럼 뭐야 이게!

얘기를 分明히 하라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아니 왜그래 이거? 말 좀 조심해, 中止 못해, 이거! 아니, 오늘 이거 會談을 破綻시키는 것이 아니라 南北關係를 아주 極惡의 狀態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거야 이거. 아니, 이거 會談破綻의 次元의 問題가 아니라 南北關係를 지금 極惡의 狀態로 몰고 가겠다 하는 作心을 하고 나온 거라고. (雙方騷亂)

南(曹英承) : 그런 얘기는 김일성이 앞에 가서 얘기해!

北(김세진) : 얘기들어요. 昨年度 아까 이야기했지만 常任委員會에서 年內로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唯一팀會談을 取消하라고 宣言文을, 決議文을 採擇했지요?

아마, 여기 다른 代表들은 몰라도 首席代表先生이야 거기에 參加를 했으니까 그걸 理解하실 겁니다. 똑똑히 아실거고, 이 宣言文 거기서 採擇했지요?

南(張忠植) : 지금 김단장이 다 이야기 했어요.

北(김세진) : 이게 뭘 말하는가? 다 綜合해 보게 되면 지금 貴側은 對話를 할려는게 아니고 對決하자는 거고, 統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分裂하자는 거고, 하나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개로 나가자는 그런 產物이다.

바로 이것은 그런 產物로부터 빚어진 것이다. 이걸 놓고 볼 적에 貴側에서는 唯一팀을 안하겠다는 것이 오늘 明白히 되지 않았는가?

南(張忠植) : 이거, 體育會談 하자는 거예요? 지금 政治會談하자는 겁니까?

北(김세진) : 그래서 이 體育會談을 지켜보는 北南의 全體 體育人들과 정말 온 겨레가 激怒하고 있다는 거, 貴側의 唯一팀 背反行爲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걸 貴側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南(張忠植) : 賊反荷杖格인 말 그만 하시라요. 예, 그만하시라요.

北(김세진) : 그러면 만약에 貴側에서 唯一팀을 할 意思다.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이제 당장 뭐인가 하면 이 보낼 書翰에다가 여기 어떤 경우도 別個의 팀이 아니라 唯一팀으로 간다는 것을 署名합시다.

이제는 말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實質이, 實踐이 重要합니다.

南(李學來) : 김세진代表 혼자 會談을 하는구만 여기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얘기를 좀 整理해서 하시오 얘기를.

北(김세진) : 그러니까 여기다 署名합시다. 貴側이 唯一팀하겠다 하는 意思가 진짜 있다면 여기다 署名합시다. 署名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南(張忠植) : 장난하자는 거요 지금?

北(김세진) : 署名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南(朴秀蒼) : 다 얘기했어요? 김대표!

南(李學來) : 責任轉嫁를, 轉嫁를 우리側에게 하자는 거요 뭐요?

南(朴秀蒼) : 說明을 할테니까, 얘기를 다 했어요?

北(김세진) : 署名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北(김세진) : 우리, 말이 必要 없습니다. 이제 現 段階는 實踐意志가 必要 합니다. 이것을 實際 行動으로 檢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署名 하 시겠습니까?

南(朴秀蒼) :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김대표!

北(김세진) : 署名하시겠습니까?

南(朴秀蒼) : 아니, 김대표!

南(李學來) : 당신이 그쪽의 首席이요? 그쪽에 단장이 계신데 당신이, 김 세진대표! 왜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요?

北(김세진) : 意思가 있다면 署名하시자는 얘기지.

南(朴秀蒼) : 우리 얘기 좀 합시다.

北(김세진) : 만약에 못하신다면 事實이 아닌가? 唯一팀을 못하겠다는 事實이 아닌가?

南(朴秀蒼) : 아니 혼자 떠들다가 가실 겁니까?

南(任台淳) : 김세진대표 얘기가 會談을 混亂스럽게 만드는데.

南(朴秀蒼) :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北(김세진) : 얘기라는게 必要없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實踐이 重要한 거예요.

南(朴秀蒼) :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南(任台淳) : 아니,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北(김세진) : 實踐하자고 나왔어요. 唯一팀을 眞心으로 하자고 나왔지요.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합시다.

北(김세진) : 자, 여기다가 수표하면 얘기하죠. 署名하면 이야기 하지요. 할 意思가 없으면, 할 意思가 없으면 여기에 署名을 못할 겁니다.

南(朴秀蒼) : 아니, 貴側에서…….

北(김세진) : 그러면 누가 唯一팀을 하자, 누가 唯一팀을 안하자 하는 것이 明白히 되지요.

南(朴秀蒼) : 가만히 좀 들어봐요.

南(張忠植) : 이걸 語不成說인데…….

南(任台淳) : 따발총이구만, 따발총.

南(朴秀蒼) : 貴側에서 하여튼 이 3가지 事項을 내놓았는데 더 以上 言及하고 싶지도 않지마는, 지금 우리의 討議의 主題가 3가지 事項으로 마치 集約이나 된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며는 그렇게 될까봐서 하고 싶지도 않지마는, 지금 貴側은 진짜 말이 是認, 謝過, 撤回 이런 單語밖에 못씁니까? 그런 말들밖에 그 社會에는 없어요?

그리고 왜 BAGOC와 OCA에, 만약에 單一팀이 構成이 되지 않으려는 別個의 팀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것을 明文化 해야되는 理由에 대해서 제가 說明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 女子가 얘기 孕胎했다고 假定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을 一般的으로 생각할때 分娩을 하리라고 믿는것이 一般的인 常識입니다.

그러나 그 애는 妊産婦의 잘못이거나 또는 外部의 어떤 影響때문에 流産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女子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내 相續人으로 삼겠다. 이렇게 約束을 했는데 딸을 낳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딸을 낳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規定을 해 놓는 것은 當然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北(김세진) : 아들을 낳아도 唯一팀을 보내자면 보내야 되고 딸을 낳아도 보내자면 唯一팀을 보내야지, 무슨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소?

南(朴秀蒼) : 지금 낳아 보지도 않고 妊娠을 했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야만 된다고 強要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그리고 會談을 進展시킬 案件을 내놓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놓은 合意事項履行保障裝置를 撤回하라고 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것으로서도 안된다 이거지요 지금.

이 3가지를 履行하지 않으려는 撤回고 뭐고 하는 그段階를 훨씬 앞으로 앞질렀다 이거예요.

北(김세진) : 아니 그 以前의 問題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南(朴秀蒼) : 지금 무얼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싸움이나 하자는 거예요? 會談을 進展시켜서 單一팀을 構成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자는 이야기 입니까, 무엇입니까?

北(김세진) : 싸움을 하지 말고 여기다 수표를 하고 빨리 하자는 거예요.

南(朴秀蒼) : 아시안게임에 나가야지요? 나가야 된다면은 會談과 關聯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合意事項履行保障裝

置를 엉뚱하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하나 엉뚱한게 없어요. 貴側에서 反論을 提起했지만 그 反論이 하나도 理解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北(김세진) : 그건 世上에 明白히 되었고, 지난 會談에서 朴先生이 다 認定하지 않았소, 그거. 지금 와서 아니라고 또 지금 발각 뒤집으면서 그래요 오늘 와서.

南(朴秀蒼) : 자, OCA에 왜 單一팀으로 나가야 된다는 事實을 알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單獨으로 나가겠다는 事實을 明文化해서 便紙를 보내자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얘지요? 당연한것 아닙니까?

北(김세진) : 唯一팀을 할 意思가 있으면 죽어도 하겠다 이런 意志를 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뭐 있으면 못하겠다.

南(李學來) : 죽어도 하겠다는 意志를 가진 있는 사람들이 그런 姿勢예요 貴側에서는?

南(朴秀蒼) : 죽어도 하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덤비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이 世上에는 많다 이겁니다.

北(김세진) :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南(朴秀蒼) : 왜 있을 수 있느냐며는 그런 것을 貴側이 못믿도록 했다 이겁니다. 貴側이 못믿도록 했다 이겁니다.

北(김세진) : 바로 唯一팀 意志가 貴側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지 않는가 지금?

南(朴秀蒼) :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貴側이 그런것을 過去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過去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

운 거예요.

北(김세진) : 過去를 말하지 않아요, 過去. 말하지 않는데 이번 會談을 놓고 말해도 貴側이 바로 이렇게 附則과 같이 不當한 體育外的인 問題, 그다음에 무슨 附屬合意書요, 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會談도 안됐고 이번會談도 또 안된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南(朴秀蒼) : 平壤에서 열리는 卓球大會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貴側 때문에 못간거 아니냐 이겁니다.

北(김세진) : 지난것 時間이 없어서 다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南(朴秀蒼) : 그렇게 남을 못믿도록 하려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北(김세진) : 現實을 놓고 불적에 現實이 그렇지 않는가. 이걸 뭐 구차스레 자꾸 辨明을 하는데 이렇게 뭐 必要있소?

南(朴秀蒼) : 구차스러운것이 아니지. 그것이 왜 구차스러운 거야.

北(김세진) : 하자면 오늘 수표를 하고, 안하자면 안하자 하고.

南(朴秀蒼)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日程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만 하면서 歲月만 보내자고 하는데 그러기 않기 위해서 日程을 設定해 놓자 얘기에요. 日程을 設定하자는 理由가 바로 그런데 있다 이거예요.

무작정 時間만 遲延시키면서 그대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日程을 딱 만들어 놔서 그 日程을 遵守해야만이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을 해가지고 무사히 大會에 出戰할 수 있다 이겁니다.

北(김세진) : 共同委員會 主管이기 때문에 共同委員會에 가서 하자고 그렇지, 누가 안하자고 그랬는가? 아 될 자꾸 다 얘기된 걸 가지고 그래요.

南(朴秀蒼) : 그러면 共同委員會에 가서,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이 있고, 共同委員會 以前에 協議할 事項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共同委員會에서 모든 것을 다 안하다는 것이 아니예요. 共同委員會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共同委員會에서 당연히 協議·解決할 事項이 있지.

北(김세진) : 明白히 된걸 더이상 말할 必要도 없고 우리 이제는 그런 걸 듣지 않아요 이제는.

南(朴秀蒼) : 그러면 뭘 들습니까?

北(김세진) : 그건 다 解明이 된건데 자꾸.

南(張忠植) : 남이 이야길 하면 들어야지요.

南(李學來) : 내가 좀 이야기 하겠어요.

北(김형진) : 가만 朴先生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하겠어요. 學來先生.

南(李學來) : 먼저 이야기 하세요.

北(김형진) : 이거 會議 좀 질서있게 합시다. 그래서

南(李學來) : 秩序를 깨뜨린거는 貴側에서 먼저 이상한 얘길 했으니까.

北(김형진) : 바로 고결, 가만히 좀 계세요. 바로 고결.

北(김세진) : 우리 首席代表가 얘기를 할때 거기서 복잡하니 받지 우리가 받았어? 말이야 사실대로 바로 해야지.

南(李學來) : 나 이거 體育人으로 알고 있었는데 體育人이 아닌 것 같애, 이제보니까.

北(김세진) : 이제 정말 아주

北(김형진) : 가만 좀 있으라우. 가만 좀 있으라우.

南(李學來) : 아 그렇게 왜 열을 내구 그래.

北(김형진) : 가만 있으세요. 그래서.

南(任台淳) : 헤어지더라도 웃는 낯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지.

北(김형진) : 가만, 任先生, 任先生.

南(任台淳) : 지금 헤어지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貴側에서?

北(김형진) : 의미심장한 發言인데, 張先生, 그렇게 합시다.

이거, 내 말을 하면 貴側에서 듣고, 그담 張先生 말하면 난 또 듣고, 그담에 이렇게 얘기해야 會談이 되지, 아 이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말을 해서야 안되지요.

南(張忠植) : 나만큼 얘기 잘 듣는 사람있어요?

北(김형진) : 아, 張先生도 오늘 좀 달라졌는데, 말할때 자꾸 나와서 이력 하면 안돼죠.

會談을, 會談을 秩序있게 합시다. 그래서 바로 제가 몇가지 말씀 좀 드립시다.

南(張忠植) : 國家元首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擧論하고 그거 좋지 않거든요.

北(김형진) : 그래서 貴側에서 이제 首席代表先生이 履行保障裝置 問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履行保障裝置야 우리 立場을 明白히 했습니다.

履行保障裝置는 이미 當局의 保障覺書와, 담보각서 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委員會가 合意事項履行을 保證하는 合意書, 이것이 있으면 履行保障裝置다.

또 이렇게 우리가 6次會談때 合意했고.

또 貴側이 지금 提起하는 나머지의, 나머지의 무슨 세가지의 保障裝置 問題를 論하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엄연하게 會談을 空轉시키고 唯一팀 構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로부터 障礙를 조성한 방패이며, 障壁이라 하는 우리 立場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젠 이렇습니다. 우리 立場은 그저 명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가지 問題를 提起한 問題에 대해서 貴側에서는 뭐, 그 별나게 생각하는데, 이젠 貴側이 생각해봐도 별난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긴 唯一팀을 바라느냐, 안바라느냐 하는 이 立場을 明白히, 이젠 現時點에서 자꾸 空轉되니깐, 이걸 確認하고 世上에 약속해야 唯一팀이 된다. 會談도 말하자면 正常軌道에서 되는 거고.

그런데 貴側은 우리가 제기한 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張首席代表가 明白히 反對한다 이런 뜻을 표했는데 매우 遺憾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매우 重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 왜 얘기하는가? 사실상 이 問題를 왜 提起하는가 하는 趣旨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現時點에서, 會談의 現時點에서 왜 이걸 提起하는가 現時點에서.

우리는 최근에 進行된, 空轉하고 있는 최근에 進行된 會談들을 심각히 總和해보고 教訓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면 現時期에 合意書, 열개항 合意書가 雙方이 合意해서 수포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직까지 40여일동안 이렇게 헛바퀴질 자꾸 하는가? 왜 이런가?

이것은 貴側이 會談을 意도적으로, 計劃적으로 遲延시키고 또 唯一팀을 결렬시키려는 이런데로부터 出發한 겁니다. 내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貴側이 會談場안에서, 會談場안에서 취한 行動들을 보면 과연 計劃적으로, 意圖적으로 말하자면 會談을 空轉시키고, 唯一팀을 결렬시키려는 이런 行動이 있었다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 個項 合意書에 도달되자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하구 안됐다고 하구 돌아가서는, 貴側에서 사실 그때 10 個項 合意書가 채택 雙方이 合意되면 기뻐해야죠. 사실 그때 貴側의 기색을 보면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자명한 사실인거고. 예? 그때는 合意안됐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1 月 10 日날 우리가 文案整理하기 위해서 實務代表接觸한테 넘겼습니다. 委任했습니다. 會談에서 張先生하고 내가.

근데 그날에 나와서는 37 個項이라는 附則을 내놓기 위해서, 10 個項이 合意됐다고 전제를 하면서 附則이라는 걸 또 내놨습니다. 그때 署名하자고 약속한 일주일 앞두고, 서른 일곱개항을 내놨습니다.

그래 이게 會談을, 아 貴側이 말하는대로 12 월에 合意하고, 1 월에 妥結하고 署名하자는 理論하고야 論理的으로도 맞지 안찮습니까? 明白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이것은 貴側이 計劃적으로 우리가 하나 먹으면 다음 또 障礙, 또 하나 먹으면 다음 障礙, 이런걸 造成하는 걸로 됩니다. 명백합죠.

그 다음에 아까 그 曹先生님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했다해서 그런데

지나간 얘기로 왜 비치지 않았는가? 왜 비치야 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 期間만큼 그 問題를 論爭하다나니까 또 늦어졌다 말어요. 왜? 듣기 거부해도 보십시오. 親善交換競技, 그 전에 처음 냈습니다. 施設踏查班問題, 交通輸送保障, 그 다음에 交通路問題 그 다음에.

南(張忠植) :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內容입니까?

北(김형진) : 아 글썄, 내말 듣고 말씀하세요. 아, 듣고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撤回했다고 하는 것이 重要的 것이지 …….

北(김형진) : 참고 들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전반적 體育交流推進問題, 또 거기다가 體育部門 學術交流問題, 아 이게 唯一팀과 關聯해서, 唯一팀과 關聯되는 문젠니까?

南(張忠植) : 아니 交流하자고 하는게 나빠요?

北(김형진) : 아니 글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昨年, 再昨年입니다. 이제는 12월에 貴側 올림픽委員長하고 우리 올림픽委員長이 편지를 어떻게 交換하고 어떻게 確答을 하고 앉았습니까?

11次아세아경기대회에 唯一팀으로 出戰할데 대한 問題를 討議하기 위해서 張先生이 임명돼 나왔고 나도 우리 올림픽을 代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論議해야 할 問題인가? 아니지요. 그런데 論議되지 않을 문젠데 막바지에 와서 署名하기 일주일전에 幅을 벗어나서, 範圍를 벗어나서 이런 問題를 提起한 底意가 뭐인가?

이것은 討議進展을 空轉시키자는 計劃的인 것이다. 論理的으로도 맞고 명백하죠 事實의으로도 맞고.

南(張忠植) : 내 얘기를 들으시라요 이제.

北(김형진) :가만히 조금, 제 말씀 한 다음 말씀하시요. 길게도 말씀하는데 두시간도 드리겠습니다.

南(張忠植) :아니 會談이 뭐, 이거 뭐.

北(김형진) :그러기 때문에, 아, 가만 좀 계세요. 그래서

南(張忠植) :아, 혼자서 다 얘기하시지요?

北(김형진) :아, 내 말씀한 다음에 하십시오. 아 내가 뭐 언제 張先生 말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깐 이거는 바로 뭐 어떻게 우리가 結論지을 수 있는가? 이거는 貴側에서 會談 막바지에 와서 會談成事를 遲延시키고 唯一팀이 빨리 成事되는 거를 制動하기 위한 이런 制動裝置 創案品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會談場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마 1次부터는 얘기 안했어요. 6次會談 以後 말했습니다.

다음 會談場 밖에서 보십시오. 會談場 밖에서 어떤 事態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會談場 밖에서.

내가 아까 貴側이 關係體育, 關係責任者라 그랬는데 事實上 張先生을 派遣한 貴側의 올림픽委員會 委員長先生이, 올림픽委員會 委員長先生이 한 쪽에서는 會談을, 會談場에 나와 張先生을 派遣하고, 代表님들을 派遣하시고는 1월 8일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單獨으로 나가는 것이 더 有利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씀.

그래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또 보십시오. 1월 8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貴側의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이. 신통히도 이틀후인 1월 10일날 37個項의 附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적인 一致입니까? 『唯一팀으

로 나가는 것 보담도 單獨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올림픽委員
長이 말하고 또 그로부터 이들이 지난 다음에 37個項이라는 附則을 들
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한 一致입니까?

우리俗談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있습니다. 예? 이
거는 必然的이고 貴側의 立場과 姿勢를 反影한 合法的인 產物이다 이겁
니다. 明白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貴側의 體育責任, 그 關係當局
者인 體育部長官 보십시오. 어떻게 말했습니까? 31일날. 또 우리는 이
거 우연한 一致아닙니다. 1월 29일 우리가 1次, 저 8次會談 끝난 다음
에 貴側이 報道를 어떻게 냈는가? 『第8次 會談을 통해서 唯一팀 會
談이 決裂危機에 처해있다』 이렇게 첫마디 報道했습니다.

이러하고 이틀後에 또 體育部長官, 選手들 앞에서 어떤 말 했습니까?
『別個의 팀으로 나가서 綜合2位 達成을 成就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그래 아 會談場에 내보낸 이런 體育高位 일꾼이 『唯一팀을 成事시켜
야 한다 이건 民族의 念願이다』 이런, 말하자면 온 겨레의 念願을 담
아서 鼓舞하지 못할 망정, 한쪽에서는 唯一팀이 막바지에 올라가서 署名
하느냐 마느냐 空轉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말을 우리가 重視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거야 論理的이구, 事實的이죠. 明白하게.

南(張忠植): 내 얘기할게요.

北(김형진): 가만히, 조금 계세요.

南(張忠植): 이거 너무

北(김형진): 내, 時間줘요. 時間드릴게요. 예 時間드려요.

이거는 바로 될 말해주는가? 明白합니다 이걸. 唯一팀 構成을 달가와 하지 않고, 애당초 달가와 하지 않고 計劃的으로, 意圖的으로 會談을 遲延시키고, 遲延시키고, 또 唯一팀 構成을 決裂시키려는 貴側의 立場과 姿勢로 부터 出發한 明白한 事實들입니다.

南(張忠植): 오늘 그 會談을 …….

北(김형진): 그렇기 때문에 明白합니다. 그저 다른 거 없어요. 張先生님 조금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提起한게 뭐 무슨 뭐 어디 뭐, 큰 뭐 머리를 써야할게 있습니까? 貴側이 眞實로 唯一팀을 바라고, 제 11 차 아시아競技大會에 정말 온 民族이 그토록 渴望하고 體育人들이 그토록 念願하는 北南唯一팀, 다시말하면 第3國에 나가서 옛날 처럼 北과 南의 選手들이 對決을 피하고 民族과 和解, 和合을, 團合을 保障하자면 唯一팀을 成事시키는 意志가 있다하면 우리 提起에 明白히 確答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必要할 것이 있습니까?

南(張忠植): 내 얘기할게요.

北(김형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

南(張忠植): 글썄, 나도 얘기좀 할 …….

北(김형진): 이제 말씀하세요. 내 끝난 다음에, 자꾸 내가 말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깐 그러지요.

南(張忠植): 여기서 지금 團長께서 너무 오래 …….

北(김형진): 아, 뭐 더 길게 하십시오 내보다. 그렇기 때문에 …….

南(任台淳):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北(김형진) : 그러기 때문에, 明白히 다른 거 없습니다. 거저 우리가 提起한 이 問題에 …….

南(李學來) : 要點만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北(김형진) : 對答을 합시다. 對答! 그렇다면 됩니다.

南(張忠植) :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北(김형진) : 예,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우선, 오늘 이 9次 會談에 나와서 내가 느낀 것은 貴側에서 오늘 이거 會談을 하자고 하는 것 보다는 結局은 會談에 대해서 이걸 깨자고 나오는 것으로 느껴지는 데요. 우선 이 內容을 討議하는 이러한 過程에서 난 아직 그런 缺禮를 내가 범한 일이 없는데요. 오늘 그 김세진代表께서 우리 國家元首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말이지요.

北(김세진) : 그래, 이름부르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南(張忠植) : 여보세요. 우리가 말이지요. 그렇게,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

南(任台淳) : 아니, 자기 같으면 우리가 金日成, 金日成하며는, 金日成, 金日成하며는 좋다는 말이지요? 지금.

北(김세진) : 정확하니 부르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된게 있어요?

南(任台淳) : 아니, 지금 南北對話를 하지말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누구때문입니까? 지금 新年辭에서 벌써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콩크리트障壁을 내세워 가지고.

南(張忠植) : 謝過를 해야된다고요, 謝過를 해야되고.

南(任台淳) : 누가 지금 하지말라고 그런 거예요? 얘기를 지금 안하고 있

어서 그런데.

南(張忠植) : 그건 오늘 김세진代表께서 그건 失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마땅히 謝過를 하셔야돼요. 아, 그건 眞心으로 謝過를 해야되고.

北(김세진) : 내가 이름 잘 못 불렀습니까? 이름을 정확하니 못불렀습니까? 내가 이름을?

南(張忠植) :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하면 말이죠 國家의 代表者를 말이죠. 代表者를 여기서 막 아이 이름부르듯이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南(任台淳) : 소위 會談을 떠나 完全히 南北關係를 惡化一路로 몰고 가야겠다 아주 作心하고 나온거라고 이걸.

南(張忠植) : 尊稱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尊稱을 안붙였잖아요?

南(任台淳) : 作心하고 나온거라고 지금. 아니 우리 國家元首 이름을 함부로 막 불렀잖아요?

南(張忠植) : 제가 만약에 말이죠. 貴側의 代表의 이름을 갖다가 先生님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말이죠.

北(김형진) : 張先生님!

南(張忠植) : 내가 이름만 부른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하머는.

北(김형진) : 張先生님! 張先生님, 가만 있어요. 그래서 그저 對答을 하면 됩니다. 이걸 뭘 자꾸.

南(張忠植) : 아, 나는 얘기를 하는데 들으세요. 나는 내 김團長 얘기 내 듣지 않았습니까?

北(김형진) : 자꾸, 會談을 왜 자꾸 그래서 이거.

南(張忠植) : 내 얘기 들으시라요. 내 지금 說明하고 있잖아요 지금.

北(김형진) : 내 물음에 對答만 하시라요.

南(張忠植) : 회담에 대한, 오늘 이것을 갖다가 會談 自體를 벌써 破棄하려고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貴側에서 지금 單一팀에 대한 그 意志를 表示한다고 했는데 정말 單一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計劃과 眞心を 가지고 이것이 會談劈頭부터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봄에 어떻게 했어요? 2次會談 끝나고 김단장이 뭐냐하면 『體育外的問題 가지고서 會談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 流産시키지 않았습니까? 單一팀을 만들고자 했었던 그때에 體育外的인 問題를 가지고서 貴側에서 먼저 會談을 遲延시켰단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今年度에 와서 體育外的 問題에 北側의 南北體育會談 代表者들이 모여서 體育外的인 問題를 갖다가 宣言하는데, 貴側에서 거기에 加擔해서 體育外的인 問題를 宣言했어요.

그것보면 그걸 그대로 이미 貴側에서는 單一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口實下에 結局은 우리側의 單獨팀을 北京에 못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底意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附則을 내건 그 問題에 대해서는 討議조차도 할 誠意가 없다. 이것은 뭐냐하면 10個事項 合意를 받아 가지고서 이것으로 結局은 뭐냐하면 共同委員會에 가서 질질 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側 練習도 못하도록 하고 單獨팀 構成도 못하도록 하고 對內外的으로 뭐냐하면 唯一팀으로다가 單一팀으로 나간다 하는 이러한 名分下에 結局은 北京大會에 못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貴側에서 우리 單一팀을 갖다가 單獨팀을 못

나가도록 하고 정말 單一팀을 만드는 것이 民族의 課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誠意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附則 4個項 남은 것 이것은 어떠한 形態로든간에 討議할 수 있는 姿勢로다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默殺해 버리고 받아 들이지 않고 이 세가지 問題를 갖다가 받아라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내가 사실 뭐 貴側에서 表現하는대로 그렇게 相對方 비위 상하는 이야기 다 한다할 것 같으면 내 體面이 傷할 것 같아서 내가 다 表現은 안합니다마는 貴側에서도 뭐냐하면 『過去事 이야기 안한다』고 그래요.

1979年度 貴側에서, 體育人の 立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팀들, 다른나라 人種이 다르다고 祖上이 다른 이러한 팀들은 다 平壤에 받아들이면서 韓國팀, 같은 同胞인 單一팀을 만들 수 있는 對象이 되는 그 사람들은 平壤에다 받아들이지 않고 「비자」發給안하고 했다는게 잘했던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984年度에 單獨팀으로 뭐냐하면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프라하」에 가서 貴側에서는 LA올림픽 「보이코트」하면서 우리보고는 單獨팀으로 가지말라. 거기에 대해서는 過去之事니까 말할 수 없겠다.

그러한 背景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過去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뭐냐하면 附則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過去之事에 대해서 뭐냐하면 貴側이 뭐냐 우리가 信賴할 수 없도록 뭐냐하면 措置를 取하고서 이제 와서 過去事니까는 그것 말하지 말라.

또 우리가 내놓은 10個事項 가운데 뭐 北側의 立場도 우리가 생각

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親善交換競技라든가 이러한 交通手段問題, 施設事前踏査問題 이것은 貴側에서 뭐냐하면 펄펄 뛰니까 會談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讓步를 하고 실제 우리 貴側에서 받아 들이고 論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議題를 내놓았는데 『이것 撤回하라』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와서는 뭐냐하면 『單獨팀으로 나가지 말라, 누구 謝過하라』말씀이죠.

우리가 이 會談에서 뭐냐하면 內容이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죠 서로 雙方이 이야기하면서, 아 생각해 보세요, 거 不敬스럽게도 뭐냐하면 相對側 國家元首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尊稱도 없이 막 여기에서 불러 대느냐 이거지요.

내가 만약에 우리 代表들 中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會談, 이분들이 말이야, 이게 會談 하려고 그러는지 責任轉嫁하면서 結局은 政治的으로 뭐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宣傳場으로 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貴側에서 말한 것 이게 세가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네가지 남은 것에 대해서 정말 眞正으로 會談을 할 用意이 있고 정말 이 共同委員會를 誕生시켜 거기에서 選手合同訓練도 하고 또한 選手選拔戰도 해서 單一팀을 만든다고 하게 되며는 우리 附則에 대해서 뭐냐하면 討議할 수 있는 그러한 姿勢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北(김세진) : 이걸 받아들이면 唯一팀도 다되고 하는건데 왜 그것 자꾸 못 받아들인다고 합니까?

北(장 응) : 제가 간단히 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北(김형진) : 예. 이야기하세요.

南(任台淳) : 뭐 똑같은 이야기는 아녜요?

北(김형진) : 아 그거 任先生 이제 내가 말씀했는데 그거 자주 그렇게 論議하는데 그…….

南(任台淳) : 아니 뭐 똑같은 이야기면 必要없다 이런 이야기죠 뭐.

北(장 응) : 蹴球選手가 이렇게 가시듯한 이야기를 하는거 좋아합니까?

南(任台淳) : 아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별로 必要한 이야기는 뭐 단 한마디도 오늘 못들어보는 것 같은데.

北(장 응) :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南(李學來) : 장웅대표는 比較的 간단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北(장 응) : 그래 난 원래 간단하게 해요.

南(任台淳) : 아 그래 간단히 하십시오.

北(장 응) :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首席代表先生이 이제 過去問題를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거 케케묵은 보따리 그거 들추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해 왔는데 朴先生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도 이젠 우리 立場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63年度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홍콩」會談부터. 「홍콩」會談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唯一팀 構成을 위한 「홍콩」會談에서.

南(任台淳) : 아니 63年度로 올라가자?

北(장웅) : 84年度로 해도 한번 달아나지 않을 테니까.

南(任台淳) : 그러면 뭐 피차 이야기를 해야될 問題로구만?

北(장웅) : 예,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 내 말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63年度에 5月 17日날 會談을 끝냈는데, 5月 17日 會談을 끝내고 貴側에서 公開를 하지말자 雙方이 合意를 했어요.

21日에 公開를 했던 말이야. 公開를 하고 우리가 21日 그쪽에서 公開를 했기 때문에 24日 우리가 公開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7月 26日 連絡者協議會가 있었는데 이 連絡者協議會에서 閔容植이라는 先生이 왔었는데 途中에 退場해 버렸습니다. 21日날 먼저 公開하고 우리가 먼저 公開했다는 게야. 그래서 決裂이 됐는데.

南(任台淳) : 아 그거야 貴側에서 벌써 公開한 것 아닙니까? 公開해서 벌써 된 것이야 뭐 세상이 뻔히 아는 것인데요 뭐.

北(장웅) : 듣고 얘기를 하자요. 듣고!

北(김형진) : 아 가만 있어요.

北(장웅) : 듣고 하라는데 任先生! 그리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日날 이제 그 술들을 마셨는데 거기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아마 지금 바깥에 記者들이 아마 記者先生들이 이효식이라는 記者先生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연세가 많을 겁니다.

그 이효식이라는 記者先生이 이야기한 걸 내가 引用하겠습니다. 黃燁이라는 團長한테 그랬는데 『會談을 하지않고 돌아갈바에는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會談破綻의 責任은 韓國側에 있다는 것은 明伯합니다.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韓國사람으로서

얼굴이 뜨거워 못견디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술도 안마시고 나갔습니다.

南(張忠植) : 아주 그 말씀하려고 적어가지고 나왔군요?

北(장 응) : 그쪽에서 계속 다 적어 가지고 땡기니까 나도 그것이라도 적어 가지고 다녀야지.

南(李學來) : 그렇죠, 적어 가지고 와야지, 正確하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北(장 응) : 日本記者 「시와라」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선 南朝鮮側이 홍콩에 와서 本問題 討議에 앞서 그러한 口實을 걸고 連絡者 會議에서 是非를 건 것과 먼저 決裂을 宣布한 戰術이 어리석다고 봅니다』이랬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뭐 먼것 더 다시 들추지 않겠습니다. 「로잔느」 會談때.

南(張忠植) : 아니 그러면.

北(장 응) : 제 말씀 듣고 그 뒤에 바로 이야기하세요.

南(張忠植) : 그 얘기하고 그러면 그저 1979年度, 1984年度도 이야기하세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南(任台淳) : 아니 1979年, 84年 이야기도 하셔야지.

南(李學來) : 1979年度 빠졌는데.

南(任台淳) : 63年 얘기했으면 79年, 84年 이야기를 해야죠.

北(장 응) : 唯一팀이 되었으면 卓球競技大會 參加합니다. 明白합니다.

南(任台淳) : 그러니까 單一팀으로는 안되고.

北(장 응) : 다음으로 LA 競技, 모스크바 올림픽 競技때 우리가 唯一팀 提

案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조차 안했습니다. 84年度 「로잔느」會談 決裂宣言을 하고 唯一팀 하자고 했다. 唯一팀이 되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팀이 아닙니다.

다음 1986年 1月 8日 「로잔느」에서 任台淳先生과 張忠植 首席代表先生이 參加한 會談에서 우리는 1988年 올림픽競技를 共同으로 主催하며 여기에 北南唯一팀으로 參加할데 대하여 이 問題가 提起되었습니다.

南(任台淳): 거기에서 交通手段 다 하자고 그랬었지요.

北(장 응): 唯一팀 안하겠다는데야 唯一팀 예, 唯一팀 안하겠는거야 唯一팀! 그래서 우리 副委員長, 진충국副委員長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團長한테 金宗河氏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唯一팀을 하지말자는 겁니까?』 對答을 못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그 南廷文氏라고 그때 와있었는데 어디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쪽지를 써줬습니다. 쪽지를 써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서울올림픽 認定하는 條件에서 唯一팀問題를 討論해 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歷史的 事實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세가지 要求를 提起했는데 이거 받아 들이면 간단합니다. 힘들게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받아 들이면 하자는 것이고 이걸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任先生 콩크리트障壁 問題를 이야기했는데 그저 콩크리트障壁 없어야 그거 좋은 거지요. 없어야 그거 좋은거죠. 없어야 그거 全面來往, 自由來往 다 그거 되는 겁니다.

南(張忠植): 콩크리트障壁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北(김형진) : 張先生 이야기했는데 뭘.

北(허혁필) : 얘기했으니까 南朝鮮의 實情을 밝히는거예요.

南(張忠植) : 그것 홍콩記者들이 전부 가서, 貴側에 가 가지고 여기 다 보지 않았어요 예? 그것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虛構的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北(장웅) : 먼저 말씀이 있었으니까, 벌써 말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세가지 要求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南(張忠植) : 그리고 1979年度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죠 北側에서는. 또 1984年度의 이야기도 北側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덮어 버리고 오늘 나오서는 정말 不快한 것이 貴側에서 물론 이 9次會談을 아예 깨자고 作定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뭐냐 하면 우리 雙方間의 會談代表間에도 우리가 참 人格을 尊重해야 되겠고 말씀이죠 하는데 왜 貴側에서는 한마디도 아까 내가 그 失言에 대해서 謝過하라.

만약에 내가 貴側에 뭐냐하면 말씀이죠 國家代表되는 분에 대해서 뭐냐하면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나에 대해서. 아마 욕을 하고 달라붙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貴側에서는 謝過 한마디없이 말이죠 하는 것은 意圖的으로 이게 會談을 다른 面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마땅히 김세진代表께서, 김형진團長께서 그것은 代表가 發言을 잘못한 것 그런 잘못을 갖다가 是認을 하고 謝過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야죠. 나는 솔직한 이야기가 이 會談이 말씀이죠 우리가 政治的인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 나가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나는: 가급적이면 貴側에 비위에 상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대표께서 그것은 謝過를 하시고 앞으로 이 體育會談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말씀이죠 그러한 謝過를 하셔야 됩니다.

北(김세진): 난 내가 謝過할게 아니라 이 體育을 자꾸 政治化하는 貴側에서 謝過할 問題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問題는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北(김형진): 다 말씀했습니까 張先生님?

北(허혁필): 제가 좀.

北(김형진): 잠깐만 首席代表先生이 이야기 했으니까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提起한 이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條件 여기에 뭐 對答할 意向이 없습니까?

南(張忠植): 그것은 우리側에 대한 案을 갖다가 貴側에서 뭐나하면 撤回하라, 남의 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自己것은 받아 들여라?

北(김형진): 아 글썬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니 제가 묻습니다. 예.

南(任台淳): 아니 지금 首席代表가 要求를 한데 대해서 答辯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東問西答이 되는 것인지.

南(張忠植): 그것 내가 答辯했잖아요?

北(김형진): 接受 안한다 그소리죠?

南(張忠植): 예.

南(李學來): 제가 한마디 좀 할까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한 다음에 하십시오..

南(李學來) : 아까도 제가 機會를.....

北(김형진) : 아니 貴側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내가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다음에 하십시오. 내 한 다음에 하십시오.

北(김세진) : 그거 빨리 내 생각에는 唯一팀을 하자면 그거 도장 찍어야 唯一팀이 되지, 말만 여기에서 싸워서.....

北(김형진) : 그래서 張先生님 ! 지금 貴側이 우리의 正當한 要求條件을 계속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明白히 해야 됩니다.

사실 貴側은 말로는 唯一팀을 云云하지만 이건 우리의 要求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가하면 以前의 問題다. 이걸 現時點에서 이에 대한 明白한 對答을 하지 않고는 더 前進을 바랄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貴側이 우리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우리 要求하는 問題에 對答을 하지않는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唯一팀을 構成하지 않겠다는 이런 立場으로 우리는 明白히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貴側은 保障裝置問題를 지금 討議하자고 그랬는데 첫째로는, 保障裝置問題야 以前에도 말씀하고 아까도 말씀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貴側에.

이것은 사실상 會談議題 밖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기로 이미 合意된 問題일 뿐만 아니라 또 內容的 側面에서는 當局의 保障覺書와 올림픽委員會의 合意事項 履行에 관한 合意書만 採擇하던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걸 貴側도 認定한 겁니다. 6次會談때.

그런데 무엇때문에 保障裝置問題를 오늘 이 時刻까지 계속 굳이 끌고
나가는가, 끌고 나가는가? 이것은 세상사람들 앞에 그것이 10 個項 合意
書와 共同推進委員會 構成方案에 관한 合意書에 署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制動裝置다. 이것은 明白합니다.

南(任台淳): 거 아까 읽었던 것 가지고 다시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北(김형진):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提起한 11次 아
세아競技大會 唯一팀으로 가고 반드시 別個의 팀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이
問題를 우리가 要求한 겁니다.

이 問題에도 貴側은 對答을 안합니다. 왜, 왜 對答을 못하는가? 唯一
팀으로 가야 한다는 여기에 唯一팀으로 갈 意思가 없기 때문에 對答을
明白히 못한다. 예?

南(張忠植): 單一팀을 못나가도록 막기위한 方便으로 말씀이죠.

北(김형진): 貴側의 속심이 더욱 明白합니다 對答을 못하는 것은.

南(張忠植): 그러한 方便에서 結局 우리의 附則을 못 받아들이는 그 立
場에 내가 對答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해요.

北(김형진): 가만좀 계세요. 제 말씀 마저 들으십시오. 그래 이것은 貴側이
別個의 팀으로 나가려는 本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게 明白해
지는거예요.

南(任台淳): 아니, 아까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北(김형진): 그렇다면, 그렇다면 唯一팀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떠한 경우에
도 別個의 팀으로가 아니라 唯一팀으로 가야 한다는 이 問題를 明白히
하지않는 이상 어떻게 마주앉아 會談을 할 수 있어요?

南(李學來) : 그것은 우리쪽에서 할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 좀 할
까요?

北(김형진) : 어떻게, 어떻게? 가만히 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學
來先生 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會談할 수 있어요?

南(張忠植) :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北(김형진) : 對答을 明白히 하세요 對答을.

南(張忠植) : 내가 對答을 했죠.

北(김형진) : 어떠한 경우에도 唯一팀으로 간다, 別個의 팀으로가 아니라 이
걸 明白히 하라는 겁니다.

南(李學來) : 이쪽에서 한 質問에 대한 答은 안하고, 그쪽에서 한 것에만
答을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一方的이 아네요?

北(김형진) :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걸 明白히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要
求한게 무엇인가 셋째로는? 唯一팀으로 아닌 別個의 팀으로 가겠다고 하
는…….

南(張忠植) : 唯一팀을 만들 수 있는 條件을 우리가 討論을 하지않고 無
條件 唯一팀으로 가야 되겠다. 宜言해라 이것은 結局은 우리側을 갖다가
單獨팀으로 못가도록 하겠다 하는 貴側의 애당초의 會談提議의 底意가 거
기에 있는 것 아네요?

北(김형진) : 首席代表先生! 가만히 張先生님, 張先生님! 잠잠지 못하게 내
가 말씀하는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南(張忠植) : 아니 아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다시 들어요?

南(李學來) : 아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또 들어요?

北(김형진) : 또 들으시요.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또 들으시요, 또 들으시요 또 들었어도.

南(張忠植) : 아니 똑같은 이야기 자꾸만 들어요?

北(김형진) : 明白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貴側이 發言을 取消하라는 問題도 왜 取消 못하는가? 別個의 팀으로 가야할 意志가 있기 때문에 이걸 取消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죠. 계속 確答하라고 해도.

이런 條件에서 事態는 明白합니다 事態는. 結局 우리가 提起한 이 세 가지 問題를 接受하지 않겠다는 것은 唯一팀에 關心이 없고 別個의 팀으로 參加하겠다는 것 以外에 다른거 없습니다.

이런 形便에서 會談을 해야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南(張忠植) : 會談할 必要없다 이 말씀이에요?

北(김형진) : 그래서 다시 貴側에 明白히 묻건데.

南(任台淳) : 아니 그 長文을 두번째 또 읽어나가시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北(김형진) : 들으시요.

南(任台淳) : 아니 듣다니요? 지금 들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北(허혁필) : 아니 들으시라요.

北(김형진) : 그래서요.

南(任台淳) : 아니 같은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會談을 하시고 싶지 않은 겁니까?

南(朴秀蒼) : 아니 그것 그만 읽으시고 저 김세진대표 是認·謝過하세요.

北(김세진) : 버릇이 없다고 그러는거요?

南(任台淳) : 이것 長文의 것을 계속…….

南(朴秀蒼) : 是認·謝過하시라고요.

北(김형진) : 그 唯一팀 構成을 위한 이런 體育會談이지만…….

南(任台淳) : 김대표는 謝過해야 되요.

北(김형진) : 貴側의 立場은 한마디로 말해서 貴側當局이 이런 두個로가 아니라, 하나로가 아니라 두個를 追求하는 이룬데 根源을 두고 있습니다 明白히. 하나로가 아니라 둘을 追求하는 이룬데 根源을 두고 있다 그겁니다. 唯一팀을 바라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貴側當局이 分裂政策을 追求하고 있다는 것을 온 겨레가 다 알고 있습니다.

南(張忠植) : 또 政治的인 發言하려고 그러십니까?

南(任台淳) : 分裂政策? 貴側當局은 遮斷政策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南北 遮斷政策을 이것 참. 아니 이게 무슨 政治會談입니까 이게?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좀 듣고 있으라요. 왜 그런가? 貴側이, 우리는 當局을 위하지 않아요. 貴側이…….

南(任台淳) : 貴側當局이 1月1日字 金日成新年辭에서 바로 遮斷政策을 썼다고요. 그래서 지금 對話가 이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事實은 事實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 가지고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北(김형진) : 말을 注意하라요. 가만 있어요.

北(허혁필) : 아 政治問題 계속 들고나와서 이렇게 할거요?

南(任台淳) : 아니 貴側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北(김형진) : 貴側은 唯一팀 構成이 民族和解와 民族團合에 服務하고.

南(朴秀蒼) : 아니 누가 지금 듣는다고 그래요 누가 지금!

北(김형진) : 祖國統一에 服務하고, 服務한다고 認定하면서 어떻게하나 이 길을 遮斷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제 任先生 말한대로 遮斷하기 위해 처음부터 計劃적으로…….

南(任台淳) : 그래 遮斷政策을 바로 오늘 바로 이 遮斷政策이 나타났어요 오늘 會談에서도.

北(김형진) : 計劃적으로 會談 앞에 障壁을 쌓고 있어요.

南(張忠植) : 이야기하는데 發言文을 또 읽는다는 것은 이것 보세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가만 있으세요.

南(張忠植) : 이야기하는 過程, 討議를 하다가…….

北(김형진) : 가만있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이래요 張先生님!

南(張忠植) : 아니요. 점잖지 못하다니요?

北(김형진) : 그래서? 貴側은…….

南(張忠植) : 貴側에서 뭐냐하면 읽는것을 또 읽는것은 내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씀이죠.

北(김형진) : 잘 들으시오.

南(張忠植) : 한번 이야기 했으면 내가 들어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드렸는데.

北(김형진) : 거 아까 말하고 지금 말이 달라요. 잘 듣지를 못하느만요. 내가 크게 말하라고요?

南(張忠植) : 아니요. 아까 貴側에서 그것 읽지 않았습니까? 읽은 것 또 읽고있지 않아요?

北(김형진) : 貴側은 이거보세요.

南(任台淳) : 부끄럽지 않소. 정말 그것 자꾸 읽어내면.

北(김형진) : 第3國에 別個의 팀으로 가서 民族끼리 겨루고 對決하면 그것이 民族對決과 民族不和에 服務하고 民族分裂에 服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어코 別個의 팀으로 가려고 策動하고 있습니다.

南(任台淳) : 장선생! 그렇지 않소?

南(朴秀蒼) : 아이 이것 치사해요.

北(김형진) : 結局 貴側의 立場은 當局의 民族分裂政策을 反映하는 것이고 그것은 徹頭徹尾 分裂政策 追從의 產物입니다.

南(張忠植) : 오늘 會談하러 나온게 아니라 아예 그것 決裂宣言하고 그 責任을 우리한테 轉嫁하러 나오셨구만요?

北(김형진) : 結論적으로 말해서 貴側은 當局의 分裂政策에 追從함으로써 神聖한 스포츠에 當局이, 貴側이 벌써 政治를 크게 介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結果가, 會談場에서 貴側이 取하고 있는 結果가 그대로 이것을 反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會談이 진통을 겪고 있고 難關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根本問題를 手術하지 않고서는 會談을 前進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세가지 要求條件을 提起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唯一팀 構成을 할 意思가 있다면 當局의 分裂政策에 追從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提起한 要求條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貴側이 모든 사실이 明白해 졌음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提起한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問題에 대한 對答조차 反對한다면 會談을 더 이상 할 必要없습니다. 우리가 提起한 初步的인 問題에 대한 對答조차 반대한다면

會談을 더 이상 할 必要가 없습니다.

南(李學來) : 그러니까 會談終結發言이시군요. 그러니까.

北(김형진) : '우리는 이젠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貴側의 잔꾀에 속지 않습니다.

南(任台淳) : 賊反荷杖이구만.

北(김형진) : 唯一팀을 渴望하는 온 겨레의 念願을 背信하고 온 民族을 愚弄하는 貴側의 姿勢와 立場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會談을 이만하자는 겁니다.

다음 會談과 關聯해서는 貴側이 우리가 提起한 세가지 問題에, 세가지 問題에 責任的이고 또 肯定的인 確答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會談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중히 提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側이 提起한 問題들을, 우리가 提起한 問題를 無條件 받아들일 것을 明白히 하면서 아무때든 좋습니다. 오늘도 좋고 이제 나가서 討論해서 午後에도 좋고 來日도 좋고 아무 때라도 確答을 주겠다면 우리는 會談場에 나올 것입니다. 이만합시다.

南(張忠植) : 1979 年度, 1984 年度 貴側에서 취한 그 問題에 대해서는 一言半句의 謝過·辨明도 없고.

北(김세진) : 거 그런 이야기 아 首席代表先生! 계속 論爭하십니까? 그건 뭐…….

南(張忠植) : 또한 오늘은 貴側에서 뭐냐하면 우리側 大統領에 대한 不敬스러운 그러한 呼稱을 하고 말이죠, 거기에 一言半句의 謝過도 없고 말씀이죠. 오늘 會談을 決裂시키면서 그 責任을 우리한테 轉嫁하기 위해서 貴側은 오늘 9次會談에 나왔다 이거예요.

北(김세진) : 會談을 論하기 위한 좋은 方案을 내놨음에도 不拘하고 말아야.

南(張忠植) : 그러니까 우리 附則을 貴側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討議할 意思가 없다고 그런다면 굳이 貴側에서 會談을 旣 것으로다가 우리는 看倣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立場에서도 貴側에서 우리의 附則을 갖다가 받아 들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前提下에서 우리가 앞으로 會談을 열기를 期待하고 김세진대표께서는 우선 謝過를 갖다가 實現해서 公開的으로 謝過해야 됩니다.

北(김형진) : 예, 이제 그만 합시다. 그래서 아무 때건 連絡하십시오. 連絡해서 우리한테 알리면 그저 午後도 좋고 來日도 그렇게 합시다.

南(張忠植) : 오늘 아주 뭐 會談을 아주 빨리고 그냥 作定하고 나오셨구만요.

南(李學來) : 그 結論맺기 위해서 名分을 찾으려고 김세진대표가 아까부터 그렇게 악을 쓰시곤 그랬구만.

北(김형진) : 張先生님 그저 午後라도 그저 電話하십시오.

南(任台淳) : 오늘은 完全히 썩기를 가지고 나오셨구만, 遮斷하기 위한 썩기를.

南(張忠植) : 아 내가 電話오기를 기다리겠어요.

北(김형진) : 예. 電話오기를 기다린다고? 對答만 주십시오. 對答만 주면 우리는 午後라도 나오겠어요.

南(張忠植) : 前과 같은 그러한 前轍을 안밟도록 예.

北(김세진) : 이거 빨리 問題를 생각해 가지고 다시 會談을 빨리 잇도록

그렇게 합시다.

南(張忠植) : 그것 저 김세진대표는 謝過를 해야되요. 謝過를 해야된다고.

北(김세진) : 來日도 좋고 모래도 좋고 빨리 首席代表先生이…….

南(任台淳) : 아니 지금 電話를 하라는 立場입니까 지금?

南(朴秀蒼) : 電話를 하셔야지.

南(張忠植) : 자 모두 電話하세요 우리側 받아 들이겠다고 말입니다. 單一
팀 附則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다시 생각해 보세요.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 2. 7 (水) 12:45 ~ 13:06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張忠植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記者先生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時 正刻에 始作해서 12時 14분에 會議가 終了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차 會談때 내놓았던 附則 4個項에 대해서 거듭 主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合意書 10個 合意事項에 대한 用語解釋問題와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못했을 때의 措置問題, 그 다음에 세계 單一팀構成・參加關聯 推進日程에 대해서 遵守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세가지와 또 하나는 南北間의 單一팀이 構成됐을때 OCA와 北京아시아경기대회 組織委員會에 單一팀으로서 參加할 것을 우리가 通告하고 아울러 單一팀이 만에 하나라도 構成되지 못했을 때는 個別팀으로 參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4개 附則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北側에서는 오늘 지난 8차 會談때와는 달리 세계 全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第11回 北京아시아대회에 絶대로 個別팀으로 參加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宣言을 하라 하는 새로운 條件을 提示했습니다.

둘째는 南側이 附則을 철회하고 單一팀構成을 지연시킨 事實을 시인하고 사과해라 두번째 조건을 냈습니다.

세번째는 南側 體育當局者의 발언을 취소해라. 그것은 태능에, 체육당국자가 선수격려차 가서 거기에서 發言한 것을 아마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立場에서는 오늘 가장 불쾌했던 것이 北側에서는 이미 單一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을 決裂宣言 하기 위한 이러한 內容을 가지고 나와서, 特히 우리나라 국가원수에 대한 경칭도 붙이지 않고 이름 그대로 불리하면서 결국은 시비를 자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구실 삼아서 결국은 결렬을 해야 되겠다, 또한 南北體育會談에 대한 이 결렬의 責任을 우리한테 전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9次會談에 입한 北側의 姿勢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附則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北側의 答辯을 저희들은 듣고 싶었습니다.

왜 79年度에 당신들이 平壤에서 열리는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 우리측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 팀은 다 받아들이면서 왜 안받아 들었느냐. 결국 民族團합과 화해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팀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說明을 해달라. 일체 거기에 대해선 北側은 8차 會談때도 그랬고 7次會談때도 거기에 대한 答辯 안했습니다.

뿐만아니라 84年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社會主義 11個 國家의 體育 部長官들이 모여서 LA 올림픽 보이콧트 大會에 北韓이 參加해서 자기도 동조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板門店에 나와 가지고는 우리들 보고서 LA 올림픽에는 단독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說明을 하라고 그러한 過去의 신용이 없었던 그러한 關係로 봐서 너희들을 우리

가 믿을수가 없다. 北側을 믿을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附則條項을 우리가 제시 아니할 수 없다,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答辯 하지 않고 홍콩체육회담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이름을 부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물쭈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이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北側團長은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當初 우리로서는 北側에서 오늘 여러가지 國際的인 狀況을 볼 때 더 會談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豫想했던대로 南北體育會談의 결렬의 責任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그 宜言으로다가 결국 會談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게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측이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이는 條件下에서 會談을 다시 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立場에서는 附則條項에 대해서 貴側이 討議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貴側에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立場만 밝히고서 오늘 會談은 아무런 성과없이 終了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質問들 하시지요.

2. 質疑・應答

質問: 이 會談은 결렬되었다라고 봐도 좋겠는지요?

答辯: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 : 또한 아까 수석대표께서는 北韓이 여러가지 理由를 내세워 가지고 韓國이 베이징게임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計劃의 일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張忠植 首席代表께서는 北韓이 韓國이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參加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왜 韓國의 參加를 阻止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南北關係의 여러가지 國際大會에서의 실력이 평가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北韓이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서 29개 種目에 한해서 시합이 展開된다고 했을때 이것은 그동안에 記錄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4대 1의 비율로 우리 韓國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하면 北京하늘에 그들의 형제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大韓民國의 국기가 北韓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고 했을때 北韓의 그 열세를 어떻게 北韓住民들 한테 北韓當局이 알려야 되겠느냐, 그동안 韓國은 못살고 가난하고 등등 여러가지 우리에게 대한 왜곡된 선전을 해왔던 이러한 姿勢를 볼 때 北京에서의 우리 韓國팀의 늑늑한 姿勢라든가 또는 北韓팀의 거기에 열세로 몰린다고 했을 경우는 이러한 그 수치를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單一팀을 만들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訓練과 選手團構成에 차질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로선 豫想을 했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10個事項에 대해서 北韓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共同委員會構成問題에 대해서는 굉장히

雙方間の 選手選抜問題에 있어서 利害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이 問題를 일렁뚱뚱하고 넘긴다고 하는 것은 1次的으로 政治的인 선전으로다가 10個事項을 合意해 놓고 공동위원회에 가서 雙方 20名의 代表가 소위 혼전을 전개해서 時間을 끌어박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單一팀을 만들 수 있는 計劃과 마음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南北間的 體育交流를 할 수 있는 이러한 風土造成을 하는데 협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單一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合意를 한다고 하면 北韓選手들이 500 ~ 600 名의 選手 또한 其他 任員, 기자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700 ~ 800 名의 人員들이 서울에 와야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측에서도 근 700 ~ 800 名의 人員이 그곳에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韓國社會를 보지 않았던 北韓의 젊은 스포츠人들에게 어떻게 說明이 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과연 이것을 北韓側이 合同訓練次 서울에 北韓選手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 眞意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親善交換 競技라도 提議를 해박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反발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 한마디로 北韓의 底意는 자기들 選手들을 合同訓練次 南側에 보낼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代辯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以上 저희들로서는 그 問題를 내지 않는것이 北韓의 아픈대를 찌르는 것같이 생각되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7次會談때 撤回했던 것입니다.

또한 交通手段의 問題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漕艇이라고 하는 이

러한 運動裝備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때 대단히 高價의 物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裝備를 北韓側의 輸送手段에 依存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다 破壞될 것입니다. 또 輸送途中에 人爲的으로 破壞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의 特殊한 車輛이 아니면 運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體育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側에서 輸送手段에 대한 것은 자기側에서 責任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능히 討議해 나올 수 있는 問題인데 자기들은 그러한 車輛도 있다든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無視해 버린다는가요.

다음 共同委員會에 들어가게 되면 自然的으로 相對方의 施設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北側에서 와서 우리施設 보고서 마땅치 않다든가 과연 北側의 313個 하는 種目を 말이죠 運動選手를 選拔하는 問題라든가 또는 合同訓練을 했을때 자기들의 施設을 南韓側 選手들에게 과연 公開할 수 있도록, 南韓側 選手들에게 과연 公開할 수 있도록 全般的으로 잘되어 있느냐 그러한 準備를 우리가 事前踏査하는 것은 하나의 常識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問題에 대해서 北韓側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結局은 10個事項 合意를 해놓고 共同委員會에서 結局 會談을 깔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問題를 提案하니까, 잘됐다 會談을 깨기위한 責任을 轉嫁하기 위한 좋은 資料를 얻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 앞으로 이러한 決裂事態가 繼續될 경우 9月 아시아競技大會에 韓國

예로서는 北京에 單獨팀으로 參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北韓으로서는 여기에 個別팀 不參主張을 正當化할 可能性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拒否한다고 보십니까?

答辯 : 제가 생각하기에는 北韓側에서는 그동안에 國際大會에서의 南北間의 對決에 北韓側이 不利하다고 하는 팀은 잘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說明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北京大會에 北韓側이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실을 찾는데 個別팀으로 두 팀이 나갔을때 不可避한 競爭이 되어야 됩니다.

그 競爭을 피할 수 있는 方法은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名分을 내세워서 南韓側이 結局은 會談을 켜기 때문에 우리는 民族團합이라는 次元에서 北京大會에 參席, 參加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立場에서 中國과 北韓과의 關係를 원만히 하기위한 하나의 구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은 神經을 쓰는것 같습니다.

우리 立場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競技大會와 88올림픽에 參加한 中國側의 國際大會에서는 마땅히 韓國팀은 單獨이든, 單一팀이든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의 禮儀라고 생각하고 國家間的 禮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韓이 單一팀을 만드는데 障礙를 만들고 單一팀構成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單獨팀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 11個月동안 저의 選手·監督들은 굉장한, 그러한 不安한 狀態에서 練習하는데 많은 蹉跌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蹴球같은 경우에 代表팀에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北韓팀하고 한팀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心理負擔, 또 單一팀이

되었을때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야 하느냐 이것도 스포츠指導者나 監督立場에서 볼 때는 대단히 그동안 고민들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1년에 가까운 歲月을 허송한 것에 대해서 이제 選手들을 強力하게 訓練을 시켜야 할 그러한 立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그러면 個別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準備는 언제부터 始作하게 되겠습니까?

答辯：우리는 單一팀構成의 成功與否에 대해서 반반으로 봤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것은 絶望的인 그러한 絶望的 狀態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名稱合意問題라든가 團旗, 團歌 問題에 있어서 北韓이 積極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저사람들이 單一팀을 만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로서는 構想을 했고 특히 年末前後로 해서 동구라파에 自由와 開放 물결이 들면서 北韓으로서의 立場이 困難하기 때문에 單一팀이라도 이것을 만드는데 誠意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봤는데 10 個項 마지막 合意段階에 와서 共同委員會의 細則을 받아들인데 檢討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때 여기에 어떠한 합정이 있지 않겠느냐. 합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確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附帶條件을, 履行保障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는 會談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 한번 論議하자고 마땅히 나올텐데 議題밖의 問題라고 하면서 펴떡뛰는 것은 結局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얼마쯤이라도 이것을 遲延시키고 決裂시킬 수 있는 그러한 作戰이었는데 미리 그것이 오지 않았겠느냐 해서 決裂에 대한 責任을 갖다 우리한테 돌린 것 같습니다.

質問：中國에서는 지난번에 김일성이가 中國을 訪問했을 적에 日本言論의 報

도에 의하면 김일성은 南北單一팀을 꼭 해야겠다는 發言을 했다고 그리고 中國側에서는 南北單一팀으로 나오지 말고 個別參加가 어떠냐 勸誘를 했다는 이런 報道도 있었고요. 그 反對의 엇갈린 報道가 있었지만 그리고 中國이 지난해 스포츠 10大뉴스를 選定하는데 있어서 1位가 英國蹴球場 慘事を 놓고 2位를 南北體育會談을 놓을 정도로 中國의 關心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北京大會에 參加를 할려면 中國側의 反應이, 앞으로 個別팀이 나갈때 中國側의 反應이 이제 注目이 되는데 北韓側의 妨害工作에 의해서 우리팀選手團이 參加 못할 確率은 어느정도라고 보시고 北韓側의 妨害工作은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答辯: 제가 생각하기에는 86 아시아게임, 88 올림픽을 통해서 東西가 和解의 路程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中國政府로 볼때는 建國以來 가장 大規模의 國際스포츠大會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中國의 10億以上の 人口가 歡迎하는 이러한 大會에 韓國이 올림픽을 開催하고 아시아競技大會를 開催했던 韓國이 參加하지 못한다고 하면 北京大會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빠진 맥주」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北側이 이것을 妨害한다고 생각했을때 이것은 北京當局을 困難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남의 나라의 잔치에 結局은 재를 뿌리는 이러한 結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北京當局에서는 容納을 안할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競技에 交流라든가 또한 其他 國際社會에서의 開催된 모든 各種 學術會議에 參加하는 態度를 보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北京側에서 우리팀의 單

獨參加를 許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 : 그럼 이제 北韓側에서 會談決裂의 責任을 結局은 우리한테 떠 넘기면서 자기네들의 決裂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갖은 妨害工作이 나올것이 아니겠습니까? 中國의 우리同胞들에게 惡宣傳도 많이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게 나갈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對備策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것도 마련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答辯 : 물론 그 問題에 대해선 저희 體育에 어떠한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對備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過去의 國際大會에 나가서 北韓選手團과 같은 選手村에서 生活을 몇번 해본 經驗이 있습니다.

가장 神經을 쓰는 것은 分斷國에 있어서의 選手團 參加에 있어서 組織委員會가 徹底하게 保護를 하고 또한 相對方의 妨害를 事前 막아주기 위해서 準備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先例가 있기 때문에 北京當局이 그렇게 無責任하게 北韓當局의 妨害策動에 의해서 우리選手들이 參加하는데 蹉跌을 빚는다든가 또는 現地에 가서 여러가지 試合을 한다든가 또는 訓練을 하는데 그것을 妨害했다고 하게되면 그것은 곧 大韓民國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政府의 일을 妨害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中國과 北韓과의 關係가 惡化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質問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最近에 南北間의 體育關係는, 사실 이 體育會談은 決裂로 끝났지만 「월드컵」蹴球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霧圍氣를 造成해 왔는데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各種 아시아選手權大會라든가 世界選手權大會에 北韓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을텐데 어느

정도 이게 경색되는 要因으로 作用할 憂慮가 되는데요?

答辯 : 제가 보기에는 選手들 個個人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南北間에 서로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人間이자 하나의 本能이라 생각하고 같은 種族에 있어서는 누가 指示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世界가 開放化되고 閉鎖社會가 開放化되는 이러한 過程에서 北韓當局이 北韓選手들 한테 예를 들어서 試合場에서의 치사스러운 그러한 場面을 演出하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結局 北韓社會가 그만큼 孤立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 그러한 무모한 行動을 해서 北韓이 國際輿論에서 지탄을 받는 行爲는 삼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質問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 2. 7 (水) 12:22 ~ 12:40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김형진 團長

1. 記者會見文

기자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제 9 차 북남체육회담이 끝났습니다. 제 9 차 북남체육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북남체육회담을 심각히 총화한 기초위에서 사실상 지난 제 7 차 회담에서 유일팀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세상에 공포돼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오랜기간 합의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남측이 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회담을 구원하고 유일팀구성을 하루빨리 탄생시킬 염원으로부터 세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반드시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참가하며 어떤 경우에도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을 합의하고 공동으로 세상에 선포하자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두번째 남측이 지금까지 6 차회담이후에 회담이 최종 결속단계에 와서 회담 외적인 문제와 부칙과 같이 불필요한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한 문제를 시인하고 그를 깨끗이 철회한 것이 두번째 문제였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남측의 체육부장관과 또 남측올림픽위원장의 발언을 취소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기한 세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유일팀 탄생이 경각에 오른 현 시점에서 회담이 결렬 상태로 조성하고 있는 남측의 입장을 명백히 확인 하기 위한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회담에서 제기 하는가? 그것은 남측이 유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유일팀 탄생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키기 위한 책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측은 회담장 안에서는 북남유일팀 구성에 실천의지가 있는 듯이 사실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회담 전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상 회담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유일팀이 하루 빨리 성사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 불려고 책동했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회담과정은 기자선생님이 취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지난시기에 취재한 것으로써 다만 여기서 실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은 6차 회담이후의 행동을 놓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지연과 결렬의 책동을 어떻게 벌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차 회담에서는 아는바와 같이 유일팀구성 10개항 기본합의서가 완전 합의됐습니다. 또 공동추진기구의 구성방안 세칙이 합의됐습니다. 우리측의 대범한 아량과 양보에 의해서 이 기본 합의서들이 채택되고 합의되자 남측은 6차 회담장에서 기쁜 얼굴로가 아니라 근심어린 얼굴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는, 또 6차 회담에서는 쌍방이 제 7차 회담에 나와서 합의서 채택에 서명할 것을 합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택을 위해서 실무대표접촉을 할 것을 위임 했습니다. 이 실무대표접

족에서는 기본합의서와 별도 합의서에 문안정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제 4차 실무대표 접촉에 나와서는 6차회담때 합의된 문제를 합의 안됐다고 생억지를 쓰다가 4차 실무대표접촉에 나와서는 합의되었다고 부끄럽지만 말해 놓고 37개항의 부칙과 같은 회담외적이거나 불필요한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회담은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기자선생 여러분! 그래 남측이 4차 실무접촉때 들고 나온 친선교환경기, 시설답사반 교환, 교통수단보장, 자동차, 선박, 항공로 문제, 전반적 북남의 체육교류의 관한 문제 또 나가서 체육학술교류문제와 같은 엉뚱한 본회담의 의제 밖에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래 이것이 말로는 유일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남측의 립장입니까?

북남체육회담은 쌍방올림픽위원회 위원장간에 명백히 세상에 서한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문제를 의제로 하기로 진행된 회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지 이제는 유일팀구성이 당장 막바지에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시기에 와서 그것도 서명일 일주일 앞두고 37개항의 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유일팀을 하자는 립장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남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추궁 앞에서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마치 성의있는 것 처럼 철회하고는 다시말하면 친선교환경기, 시설답사반, 교통로문제 이것은 너무도 엉뚱하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이 비웃는 것으로 해서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마당에 나와서 별개의 팀으

로 참가 할 데에 대한 합의를 쌍방간에 해서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 리사회에 편지를 보내자고 하는 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진실로 바라는 남측의 입장입니까? 이 모든 사실로 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남측이 회담장안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회담을 지연시키고 유일팀을 파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책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차회담에서 까지 이미 세상에 그 부당성이 폭로된 제동장치와 같은 보장장치를 또 들고 나오으로써 회담의 장벽을 세워 놨습니다.

회담장 밖에서 사태를 봅시다. 지난 1월 8일 남측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또 대한체육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태능선수촌 훈련 개시식을 진행한 다음 기자들 앞에서 별개의 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유일팀으로 나가는 것이 저조한 성적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세상에 대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어떤 개별적인 체육인이나 기자도 아닌 회담장에 자기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남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한말은 유일팀보다도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선포한 것으로 되며 이것은 분열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인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일팀을 파탄시키는 남측의 명백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월 8일 입니다. 이게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게.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후인 1월 10일 제 4차 실무대표접촉 때입니다. 이틀후인 이런 선언이 있는 다음으로 부터 이틀후에 남측대표들은 실무대표접촉

에 나와서 37개항의 부칙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그 부당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림픽위원장이 한 선언과 실무대표접촉에 나와서 이틀후에 제기한 이 문제가 우연한 일치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나간 대결과 승패를 겨루는 것을 원하고 있는 남측 럽장의 명백한 표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지난 1월 31일 남측의 체육부장관은 태능선수촌에 나가서 올해 체육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서 다름아닌 올해 체육부 업무계획입니다. 당국의 체육 최고책임자이면 응당 올해 체육업무계획에서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민족의 염원이고 온 체육인들의 갈망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어떻게 하나 유일팀을 구성시키기 위한 말을 하지 못할 망정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별개의 팀으로 나가서 종합 2등 달성, 성취할 것을 할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측체육당국의 올해 업무 계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회담장에서는 유일팀을 구성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남측의 고위당국자들이 뒤에 앉아서는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나갈데 대한 유일팀 파탄선언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늘 제 9차 회담에서는 여지없이 부당성이 폭로되고 세상사람들에게 망신을 한 제동장치인 보장장치 문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측이 자기의 속심을 명백히 날날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측의 부당한 책동과 행동으로 해서 회담을 결렬위기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제기한 세가지의 중대한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에 남측이 똑똑히 대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부당한 보장장치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담장에 나온 대표들의 모든 행동과 발언이 모든 행위로 봐서 대답을 줄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측대표단 뿐만아니라 남측 체육관계 최고일꾼들이, 책임자들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추구하는 정책을 확고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별개의 팀으로 나갈려는 이런 입장을 오늘 회담장에서 명백히 드러내 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회담을 결속하면서 남측이 이런 입장과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체육인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유일팀을 진심으로 바라고 민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남측이 취해온 모든 책동으로 인해서 체육회담이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확답을 줄때까지, 대답이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남측에 촉구를 했습니다.

때문에 남측은 자기 부당한 분열주의적 입장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합에 이바지하는 유일팀 구성을 위한 본연의 체육인의 자세에 돌아와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할뿐입니다.

다음번에 만날 날짜는 남측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긍정적인 확답을 줄 의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내일도 좋고 오늘 오후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확답이 오면 우리는 회담장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 質疑·應答

質問: 다음번에 만날 날짜를 결정했습니까?

答辯: 다음번에 만날 날짜는 남측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긍정적인 확답을 줄 의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내일도 좋고 오늘 오후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확답이 오면 우리는 회담장에 나옵니다.

質問: 남한측이 북경아시아경기대회때까지 최종확답이 없으면 북경아시아 대회 참가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答辯: 그것은 남측에 달려 있습니다. 남측이 자기 부당한 입장을 철회해야 됩니다. 만약에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족을 우롱하는 것이고 민족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으로 됩니다.

質問: 북경아시아대회에 남측의 최종 확답이 없으면 분리된 팀으로 출전할 생각입니까?

答辯: 우리는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별개의 팀으로가 아니라 유일팀으로 나가기 위해서 회담을 하며 앞으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